

#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The effect of tax expenditure on the structural change in  
middle-class of Korea

원 종 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 제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선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인턴

# KIHASA



현안보고서 2013-04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The effect of tax expenditure on the  
structural change in middle-class of Korea**

발행일 2013년 11월  
저자 원종욱·고제이·김선희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122-705)  
전화 대표전화: 02)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한디자인 02)2269-9917  
가격 비매품

© 한국보건의사회연구원 2013

ISBN 978-89-6827-109-0 93330

## 요약

|  |           |
|--|-----------|
| <b>1. 연구의 배경 및 목적</b> .....                      | <b>3</b>  |
| 가. 연구의 배경 .....                                  | 3         |
| 나. 연구의 목적 .....                                  | 4         |
| <b>2. 중산층 관련 선행연구</b> .....                      | <b>5</b>  |
| 가.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 .....                       | 5         |
| 나. 중위소득 분위기준에 따른 중산층 규모 산정 .....                 | 9         |
| <b>3. 중위소득 분위기준에 의한 중산층의 규모 및 변화 추이 현황</b> ..... | <b>13</b> |
| 가. Data의 설명 .....                                | 13        |
| 나. 주요변수 .....                                    | 14        |
| 다. 가구균등화 소득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                  | 16        |
| 라. 가구균등화 지출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                  | 25        |
| 마. 소득계층별 적자, 흑자의 비중변화 .....                      | 34        |
| <b>4. 세후소득기준 소득계층별 소득세감면의 중산층 복원 효과</b> .....    | <b>35</b> |
| 가. 소득세 체계와 소득세 감면 규모 계산 .....                    | 35        |
| 나. 계층별 소득세감면 규모 .....                            | 40        |
| 다. 계층별 소득세감면에 따른 중산층 복원 효과 .....                 | 41        |
| <b>참고문헌</b> .....                                | <b>45</b> |
| <b>부록</b> .....                                  | <b>47</b> |

## 표 목차

|                                    |    |
|------------------------------------|----|
| 〈표 3- 1〉 균등화 경상소득(실질)기준 평균 및 중위소득  | 16 |
| 〈표 3- 2〉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 16 |
| 〈표 3- 3〉 균등화 경상소득기준 소득계층별 비중       | 17 |
| 〈표 3- 4〉 중산층의 규모변화                 | 18 |
| 〈표 3- 5〉 소득계층별 3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 19 |
| 〈표 3- 6〉 소득계층별 40~5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 19 |
| 〈표 3- 7〉 소득계층별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변화    | 20 |
| 〈표 3- 8〉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0 |
| 〈표 3- 9〉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0 |
| 〈표 3-10〉 30대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1 |
| 〈표 3-11〉 4,50대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1 |
| 〈표 3-12〉 60대 이상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2 |
| 〈표 3-13〉 30대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2 |
| 〈표 3-14〉 4,50대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2 |
| 〈표 3-15〉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3 |
| 〈표 3-16〉 30대 기타직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3 |
| 〈표 3-17〉 4,50대 기타직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3 |
| 〈표 3-18〉 60대 이상 기타직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23 |
| 〈표 3-19〉 소득계층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 24 |
| 〈표 3-20〉 균등화 소비지출(실질)기준 평균 및 중위지출  | 25 |
| 〈표 3-21〉 지출수준별 평균지출                | 25 |
| 〈표 3-22〉 균등화 소비지출기준 지출수준별 비중       | 26 |
| 〈표 3-23〉 중산층의 규모변화                 | 27 |
| 〈표 3-24〉 지출수준별 3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 28 |
| 〈표 3-25〉 지출수준별 40~5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 28 |
| 〈표 3-26〉 지출수준별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변화    | 29 |
| 〈표 3-27〉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중산층의 구성비 변화    | 29 |
| 〈표 3-28〉 자영업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29 |
| 〈표 3-29〉 30대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0 |
| 〈표 3-30〉 4,50대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0 |
| 〈표 3-31〉 60대 이상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1 |
| 〈표 3-32〉 30대 자영업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1 |
| 〈표 3-33〉 4,50대 자영업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1 |
| 〈표 3-34〉 60대 이상 자영업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2 |
| 〈표 3-35〉 30대 기타직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2 |
| 〈표 3-36〉 4,50대 기타직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2 |
| 〈표 3-37〉 60대 이상 기타직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 32 |

|   |    |
|---|----|
| 〈표 3-38〉 지출수준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      | 33 |
| 〈표 3-39〉 적자 가구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 34 |
| 〈표 3-40〉 흑자 가구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 34 |
| 〈표 4- 1〉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                   | 37 |
| 〈표 4- 2〉 연도별 종합소득공제 .....                   | 38 |
| 〈표 4- 3〉 연도별 세율표 .....                      | 38 |
| 〈표 4- 4〉 근로소득세액공제 .....                     | 39 |
| 〈표 4- 5〉 '08-'10년 귀속소득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     | 39 |
| 〈표 4- 6〉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 39 |
| 〈표 4- 7〉 소득 계층별 월소득공제 .....                 | 40 |
| 〈표 4- 8〉 기본공제 소득효과 배수 .....                 | 41 |
| 〈표 4- 9〉 균등화 세후+총조세지출(실질)기준 평균 및 중위소득 ..... | 42 |
| 〈표 4-10〉 소득계층별 평균 세후+총조세지출 .....            | 42 |
| 〈표 4-11〉 균등화 세후+총조세지출기준의 소득계층별 비중 .....     | 42 |

## 그림 목차

|  |    |
|--|----|
| [그림 3-1] 균등화 경상소득기준 중산층의 비중 변화 .....     | 17 |
| [그림 3-2] 소득계층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   | 24 |
| [그림 3-3] 균등화 소비지출기준 중산층의 비중 변화 .....     | 26 |
| [그림 3-4] 지출수준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   | 33 |
| [그림 3-5] 적자, 흑자 가구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  | 35 |
| [그림 4-1] 과세소득의 종류와 구분 .....              | 36 |
| [그림 4-2] 소득 그룹별 총조세지출(월) .....           | 40 |
| [그림 4-3] 균등화 세후+총조세지출기준 중산층의 비중 변화 ..... | 43 |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소득계층별 중산층 지위와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여 중산층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소득공제체계의 변화가 세후소득기준 중산층의 규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를 관찰하였다.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기본공제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성이 강조된 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2010년에는 기타공제의 상대적비중이 크게 증가된 체계이다. 제한된 분석이지만 2010년의 세후소득에 기본공제와 기타공제를 2000년 체계로 적용시키는 경우 중산층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가계동향조사(1990, 2000, 2010)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소득공제규모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저소득계층의 총소득공제는 2000년의 약25%로 저소득층의 총소득공제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로 기본공제와 기타공제의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2000년 대비 2010년의 총소득공제규모는 하위중산층(중위소득 50% ~ 중위소득)이 1.35배, 상위중산층(중위소득 ~ 중위소득 150%)은 3.9배, 하위고소득층(중위소득 150% ~ 200%)은 8.3배, 중위고소득층(중위소득 200% ~ 300%)은 3.3배 그리고 상위고소득층(중위소득 300%이상)은 1.23배로 총소득공제의 절대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1〉 소득 계층별 월소득공제

(단위: 원)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2000 | 기본공제  | 24,639 | 8,723  | 4,377  | 2,606  | 7,714   | 25,214  |
|      | 기타공제  | 27,816 | 18,383 | 12,455 | 9,258  | 36,423  | 150,333 |
|      | 총조세지출 | 52,455 | 27,105 | 16,833 | 11,864 | 44,137  | 175,547 |
| 2010 | 기본공제  | 6,728  | 11,757 | 16,512 | 19,816 | 24,108  | 28,910  |
|      | 기타공제  | 6,409  | 24,762 | 49,139 | 78,668 | 122,830 | 186,230 |
|      | 총조세지출 | 13,136 | 36,519 | 65,651 | 98,485 | 146,941 | 215,140 |

주: 기타공제 = 추가공제 + 소수자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표준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EITC + 비과세(근로소득공제)

2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표 2〉 기본공제 소득효과 배수

(단위: 배)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2000 | 기본공제  | 1.00  | 0.35  | 0.18  | 0.11  | 0.31  | 1.02  |
|      | 기타공제  | 1.13  | 0.75  | 0.51  | 0.38  | 1.48  | 6.10  |
|      | 총조세지출 | 2.13  | 1.10  | 0.68  | 0.48  | 1.79  | 7.12  |
| 2010 | 기본공제  | 1.00  | 1.75  | 2.45  | 2.95  | 3.58  | 4.30  |
|      | 기타공제  | 0.95  | 3.68  | 7.30  | 11.69 | 18.26 | 27.68 |
|      | 총조세지출 | 1.95  | 5.43  | 9.76  | 14.64 | 21.84 | 31.98 |

주: 기타공제 = 추가공제 + 소수자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표준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EITC + 비과세(근로소득공제)

저소득계층의 기본공제액을 1로 놓고 기본공제 소득효과배수를 보면 2000년에는 하위 중산층 ~ 하위고소득층까지 급격하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상위고소득층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1.02배로 저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에는 계층이 증가할 수록 증가폭이 점점 커져 상위고소득층에서는 저소득계층의 4.30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0년에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총조세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기타공제 중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비과세(근로소득공제)에서 고소득층(하위고소득 ~ 상위고소득)이 2000년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0년의 세후소득+총조세지출의 중산층 비중은 72.66%이고 2010년의 세후소득+총조세지출을 적용한 중산층 비중은 68.31%로 감소한다. 그러나 2010년의 세후소득+2000년의 총조세지출을 적용한 중산층 비중은 70.39%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인적공제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2000년의 소득공제체계를 2010년에 적용하는 경우 세후소득기준 중산층은 68.31%가 아닌 70.39%로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의 배경

국가마다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양할 수 있지만 거의 모든 국가들이 중산층의 상대적인 규모와 추이변화에 대해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다. 거시경제의 대표적인 지표인 실업율, 물가, 재정수지, 이자율 등은 개별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이들 지표의 변화는 중산층 변화의 원인 및 결과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중산층이 감소한다는 것은 소득활동을 하는 계층의 비중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세수의 감소와 재정수지의 악화를 의미한다. 실업율의 증가는 중산층을 저소득층으로 몰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모든 국가들의 정부는 실업율의 변화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사전에 다양한 정책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중산층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활동의 주축인 동시에 소비의 주축계층이고 건전한 납세자계층이기 때문이다. 중산층이 감소한다는 것은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기제가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정책의 몰락이라는 극한 상황에 까지 이를 수 있다. 일국의 경제는 큰 순환체계에 비유할 수 있고 중산층의 규모는 민간부문이라는 국가경제의 반쪽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산층의 규모와 질적인 건전성 확보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나라는 지난 10년 동안 경제의 양극화가 큰 이슈로 제기되어 왔다. 경제의 양극화는 소득의 양극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극화로 인한 중산층의 규모와 비중변화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초 정부는 중산층 70%복원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많은 연구에서 중산층규모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기존 연구는 중산층의 변화 추이만을 보고할 뿐 중산층을 다시 복원하기 위한 정책 제안에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중산층의 구성변화를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책수단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 나.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수행된 중산층관련 연구를 소개하고 차이점을 비교하는 동시에 지난 20년 동안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소득계층별 종사상지위와 연령계층의 구성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여 중산층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는 데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지난 20년 동안 감소한 중산층을 복원하기 위해 조세지출정책을 편다는 것을 가정하여 소득공제체계의 변화가 세후소득기준 중산층의 규모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관련된 각종 감면제도는 지난 20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0년과 2010년을 비교해 보면 2000년에는 기본공제의 상대적 비중 및 중요성이 강조된 체계를 갖고 있는 반면 2010년에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제의 상대적 비중이 크게 증가된 체계이다. 제한된 분석이지만 2010년의 세후소득에 기본공제와 기타공제를 2000년 체계로 적용시키는 경우 중산층의 구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가계동향조사(1990, 2000, 2010)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00년에 비해 2010년의 소득공제규모는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저소득계층의 총소득공제는 2000년의 약 25%로 저소득층의 총소득공제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소득계층별로 기본공제와 기타공제의 비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으나 2000년 대비 2010년의 총소득공제규모는 하위중산층(중위소득 50% ~ 중위소득)이 1.35배, 상위중산층(중위소득 ~ 중위소득 150%)은 3.9배, 하위고소득층(중위소득 150% ~ 200%)은 8.3배, 중위고소득층(중위소득 200% ~ 300%)은 3.3배 그리고 상위고소득층(중위소득 300% 이상)은 1.23배로 총소득공제의 절대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득공제체계를 2000년 기준(2010년 가격)으로 환산하여 2010년의 소득계층별 소득에 합산하면 소득계층구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2. 중산층 관련 선행연구

### 가.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

#### 1)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여론조사(2013.4)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약 12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설문조사한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여론조사(2013.4)를 통해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를 알아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중층’이 37%, ‘중하층’이 32%, ‘하층’이 21%, ‘상/중상층’이 9%로 국민절반은 자신의 생활수준을 하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열 명중 두 명은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지역별로는 광주/전라(30%)에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구/경북(25%), 인천/경기(21%), 부산/울산/경남(20%), 대전/충청/세종(16%), 서울(16%) 순이었으며 나이가 들수록 늘어 60세 이상 열 명중 네 명이 스스로 하층이라 생각했다. 직업별로는 무직/기타(35%), 블루칼라(32%), 자영업(28%), 가정주부(22%), 화이트칼라(9%), 학생(7%)순으로 스스로를 하층이라고 생각했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에 대해 묻은 결과는 ‘나쁜 편이다’ 79%, ‘보통’ 15%, ‘좋은 편이다’ 4%, ‘모르겠다/응답거절’ 2%로 현재의 경기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고 긍정적 평가는 소수였다. 현재 경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2009년에 94%로 최악이었고 2010년에 57%까지 완화됐다가 이후 악화되는 추세로 작년(2012년) 7월에 비해 부정 평가가 8%포인트 많아졌다.

만약 여윈돈이 생긴다면 어떻게 사용하겠는지 묻은 결과 ‘빚부터 갚겠다’ 31%, ‘저축/투자를 하겠다’ 56%, ‘지출을 늘리겠다’ 10%로 우리 국민 열 명 중 세 명은 여윈돈이 생기면 투자나 지출보다 빚부터 청산할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빚부터 갚겠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40%)에서 가장 많았으며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많았다. 반면 저축/투자를 하겠다는 응답은 20/30대(69%, 61%),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많았으며 지출을 늘리겠다는 응답은 60세 이상(17%)에서 가장 많았다.

현재의 경제사정은 부정 평가가 많지만 ‘앞으로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

전망이 우세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물을 결과 ‘좋아질 것’ 38%, ‘비슷할 것’ 38%, ‘나빠질 것’ 17%, ‘모르겠다/응답거절’ 8%로 경기 전망은 낙관이 비관의 두 배를 넘었다. 재작년(2011년) 이후 비관 전망이 많았으나 올 들어 낙관 전망이 크게 상승하는 추세다.

## 2)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2012.8)

전국 20세 이상의 성인 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주관적 ‘중산층 의식’과 소비생활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알아본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2012.8)를 통해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를 알아보았다.

조사에 따르면 스스로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50.1%에 달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6.4%에 불과하여, 통계청의 2011년 전체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중산층 비율 64.0%에 크게(17.6%p)못 미치며, ‘고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1.9%에 불과하여, 통계청의 고소득층 비율 20.8%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저소득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50.1%에 달하여, 통계청에서 발표한 상대적 빈곤율(저소득층 비율) 15.2%보다 훨씬(3배 이상) 많으므로 주관적 고소득층과 중산층은 실제보다 과소평가 되고 있는 반면, 주관적 저소득층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고 있다.

또한 50대 이상, 블루칼라, 자영업자, 농림어업종사자, 읍면지역, 저소득계층, 영·호남지역에서 ‘중산층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50대 이상 중고령층은 은퇴를 전후한 불안감과 소득감소 때문에 주관적 ‘중산층 귀속의식’이 가장 낮았고 저소득층이라는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20대, 학생, 주부, 화이트칼라, 대도시지역, 고소득계층,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중산층 귀속의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가벼운 20대에 ‘경제적 행복감’이 높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저소득층으로 하락했다’는 응답자(1010명 중 245명)만을 대상으로 ‘계층 하락’의 이유를 질문한 결과, ‘소득 감소’라는 응답이 32.7%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부채 증가’ 17.6%, ‘불안정한 일자리’ 14.3%, ‘과도한 자녀교육비’ 13.5%, ‘재산가치 하락’ 11.8%, ‘실직’ 5.3%, ‘주거비 부담’ 4.9%순이었다.

‘저소득층 전락’의 원인을 연령별로 보면 각기 다른 특징이 나타났는데, 연령별로

부담을 느끼는 요인이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20대는 불안정한 일자리(33.3%)와 실직(7.4%)등 일자리 관련 응답이 가장 높아서 ‘청년실업’의 심각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30대는 ‘대출이자 등 부채의 증가’에 대한 응답이 22.2%로서 전체 평균(17.6%)에 비해 크게 높게 나타나, 결혼 이후 주택구입과 관련있다고 추정된다. 40대는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 응답이 24.4%로서 전체평균(13.5%)에 비해 높게 나타나, 다른 연령층 대비 교육비 부담이 크다고 추정되며 50대 이상은 ‘소득감소’(37.4%), ‘불안정한 일자리’(16.5%), ‘실직’(7.7%) 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은퇴와 노후 준비 부족에 따른 불안감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98.1%가 향후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에서의 계층상승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비관적 평가가 지배적이었으며 ‘쉬워질 것’이라는 낙관적 응답은 1.9%에 그쳤다. 향후 계층상승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응답자(98.1%)만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양극화의 진행’(36.3%), ‘계속되는 체감경기 부진’(21.5%), ‘좋은 일자리 부족’(12.1%), ‘과도한 부채’(11.4%), ‘불공정한 기회’(9.0%), ‘노후준비 부족’(6.4%), ‘좋은 교육 못 받아’(3.1%)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계층상승이 어려운 이유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각 연령층의 생활에 있어서 체감하는 부담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대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 부족’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30대와 40대는 상대적으로 ‘양극화’와 ‘가계부채’에 대한 응답이 높았으며 은퇴를 고민하고 있거나 준비 없는 은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대 이상의 경우는 ‘노후준비 부족’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중산층이라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이 얼마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494만 6천원’이었는데 각자 적어낸 금액을 구간별로 구분해 보니, ‘500만원 이상’의 구간에 57.0%가 분포하여 가장 많았으며, ‘400~499만원’ 구간에 21.5%, ‘300~399만원’ 구간에 18.1%, ‘200~299만원’ 구간에 3.4%가 분포하였다. 연령별로는 30대가 평균 523.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537.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제주도가 가장 높았다.

1998년 조사된 ‘주관적 중산층 월평균 소득’이 4인 가족 기준 248만 5천 9백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12년 현재 ‘중산층 가구’의 소득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니다. 2012년 현재 명목1인당 국민소득(GDP)은 2만 3천 달러로서, 1998년의 7천7백 달러에 비하면 3배가량(연평균 8.3%)증가하였으나, 주관적인 중산층의 월평

균소득은 2012년 현재 494만 6천원으로서 1998년에 비해 2배가량(연평균 5.0%)증가하는데 그쳤다.

### 3) 동아시아연구원의 국민 계층의식 조사(2009.9)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동아시아연구원의 국민계층의식조사(2009.9)를 통해 주관적 기준에 의한 중산층 규모를 알아보았다. 조사 여론브리핑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실제 중산층 가구의 생활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중위소득(2007년 가구총소득 기준 월 333만원)의 50~150%, 즉 월 167~499만원에 속하는 실제 중산층가구는 평균 월수입 311만원, 금융자산 3900만원, 부동산 1억 9천만원, 주택 소유율 67.4%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중산층이 되려면 월 가구수입은 536만원, 금융자산은 평균 3억 8천만원, 부동산은 6억 6천만원에, 마땅히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자동차는 2300cc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머릿속에 그려는 중산층의 기준이 현실보다 높다보니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귀속의식이 낮을 수밖에 없다.

월 소득 기준 중산층에 속하는 사람(월 167만원~499만원) 중에서 스스로를 하위층에 속한다고 과소평가한 사람이 열 명 중 네 명(41.2%)이나 되었다. 월 소득 500만원이 넘는 상류층 중에서 스스로를 상류층이라고 보는 사람은 4.8%에 불과한 반면 75%가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심지어 20.2%가 자신을 하류층이라고 보았다. 전체적으로 자신이 속한 계층위치보다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실제보다 중산층의 기준을 높게 보는 것은 소득감소나 노후, 실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해 현재 개인의 준비나 사회 안전망으로는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불안이 작용한 탓으로 보인다. 여러 위험 요인들 중 중산층에게 불안을 주는 요인으로 는 노후문제 70.5%, 소득/자산의 감소 67.5%, 질병 및 건강문제 56.7%, 고용문제 56.3%였다. 문제는 이들 위험요인들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10년 후 불안요인을 물어본 결과 중산층 응답자들은 노후문제 80%, 질병 및 건강 문제에 75.5%, 소득이나 자산 감소에 74.4%가 걱정된다고 답해 이러한 문제들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다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녀교육이 가장 큰 걱정일 뿐 아니라 노후나 고용,

소득 감소문제를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욱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다. 학생자녀를 둔 중산층 가정의 경우 자녀교육문제를 불안요인으로 꼽은 응답이 81.5%로 가장 높았고, 소득/자산 감소가 79.7%, 노후문제 78.0%, 고용불안 63.9%로 뒤를 이었다.

## 나. 중위소득분위기준에 따른 중산층규모 산정

### 1) 중산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및 현황

중산층 비중의 축소에 대해 분석한 논문의 효시로는 Thurow(1984)를 들 수 있다. Thurow(1984)는 미국의 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소득 중위수의 75%에서 125%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1967년 28%에서 1982년에는 24%로 감소하였으며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은 상위층과 하위층으로 균등하게 이동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비슷한 시기에 Lawrence(1984)는 중산층을 가계소득 중위수의 2/3에서 4/3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은 1969년 50%에서 1983년 46%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이상에서 보듯 Thurow(1984)와 Lawrence(1984)는 소득 중위수의 일정한 퍼센트를 차지하는 관찰치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중위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 접근법(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을 사용하였다.

이에 반해 Bradbury(1986)는 미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이 53%에서 48%로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고, Duncan et al.(1991)은 미국에서 1980년 이후 중산층의 비중은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는 경기나 인구구조적인 요인이 별 작용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영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Jenkins(1995)의 경우 1980년대 중산층의 감소가 보편적인 현상이며 총체적인 변화의 원인은 근로가구와 비근로가구의 경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들 연구는 특정 연도의 소득에 따라 중산층을 정의하였으며 다른 비교 연도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을 고려하였는데, 중산층의 정의에 대한 이러한 접근방법을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이라고 한다.

Burkhauser et al.(1996)의 경우에는 소득분포의 비교에 있어서 서로 다른 두 연도의 소득분포가 교차하는 점을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였는데 1980년대 미국 자료를 이용한 결과 중산층의 축소는 소득 규모가 나빠졌다기보다는 개선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Horrigan and Haugen(1988)은 구간환가방법(interval deflator approach)과 일

정 비율 접근법(fixed percentage of median income approach)의 두 방법을 공히 사용하여 중산층의 정의와 소득의 정의, 표본 단위에 대해 다양한 설정을 적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시행한 결과 1969~1986년 기간 동안 중산층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이들 감소된 대부분은 상위층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경제연구소(2006)의 소득 양극화를 분석한 보고서에서는 중산층을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계층으로 정의하였으며, 양극화의 지수로부터 중산층의 규모를 측정하여 중산층 비중의 축소를 검증한 논문으로는 이정우·이성림(2001)을 들 수 있다. 이정우·이성림(2001)에서는 여러 가지 기준으로 중산층의 규모를 측정하였는데 특히 1998년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중산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 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중산층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나 가구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한 논문과 양극화 지수의 추정을 통하여 중산층의 감소를 실증 분석한 논문으로는 다수가 있다(전병유, 2007).

본고에서는 소득을 일렬로 정렬했을 때 가운데에 있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하고 중위소득의 50%미만을 저소득층, 50%~150%을 중산층으로 보았으며 중산층을 다시 중위소득의 50%~중위소득, 중위소득~150%으로 나누었다. 또한 중위소득의 150%이상을 고소득층으로 보고 고소득층을 다시 중위소득의 150%~200%, 200%~300%, 300%이상으로 나누었다.

### 가)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윤희숙(2013)은 ‘중위 60% 인구의 소득점유율’ 기준, ‘중위소득 50~150% 범위 내 인구 비중’ 기준,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소비’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정의하고 중산층 현황을 살펴보았다. ‘중위 60% 인구의 소득점유율’ 기준은 중산층을 중위 60% 인구가 고정시킨 후 이들이 차지하는 소득 비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중산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가구소비실태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상 중위 60%의 경상소득 점유율은 1996년 53.9%에서 외환위기 시 크게 줄었다가 2006년에 1996년 수준을 넘어선 이후 2011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는 데 반해 하위 20%의 소득점유는 1996년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위소득 50~150% 범위 내 인구 비중’ 기준은 ‘중위 60%의 소득 비중’이 인구 비중을 고정시킨 채 여기에 귀속되는 소득 비중을 관찰하는 것과 달리, 소득 범위를 고정시키고 해당 인구의 비중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중산층이 포괄하는 인구 비중의 변화를 관찰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와 OECD는 빈곤이 끝나는 지점을 중산층의 시작점으로 삼으면서 중위소득 중심으로 이를 대칭적으로 적용한 ‘중위소득의 50~150%’ 기준을 사용해 왔다(유경준·최바울 [2008]). 1992년 가계동향조사 가처분소득 기준의 중산층 비율(2인 이상 도시가구)이 76.3%에 도달한 후 2008년 66.3%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상승하여 2011년에는 67.7%, 전체 가구는 2011년 64.0%였다.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서의 소비’ 기준은 단기소득의 일시적 변동을 상쇄하면서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보다 잘 반응하는 소비지출을 이용해 중산층의 경제력 비중이나 인구 비중을 관찰하고 있다. 가구소비지출 기준 중위 60% 인구의 소비지출 점유율은 1992년 53.4%에서 2002년 55%로 상승한 후 2012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소비지출 중위값의 50~150%에 속하는 인구를 중산층으로 설정할 경우에는 중산층 비중은 1992년 76.9%에서 2002년 79.0%로 증가한 이후 2012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나) 올프슨 지수에 의한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유경준·최바울(2008)은 중산층을 전체가구에서 중산층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냐 하는 ‘중산층의 가구비중’, 중산층을 직접적으로 정의하지는 않지만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고안된 지수인 ‘올프슨 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전체가구를 소득수준에 따라 20%씩 균등한 수로 5등분 하였을 때 중간인 2,3,4 등분에 속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는 방법(Easterly[2001])인 ‘중산층의 소득점유율’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하였다.

‘중산층의 가구비중’은 OECD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의(OECD[1995])로,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미만, 50%~150%, 150%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이는 상대적인 기준의 정의라 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의 50~150% 사이에 포함되는 가구의 비중이 중산층의 척도이다. ‘올프슨 지수’는 중산층을 중위소득 부근의 인구계층으로 규정하고 중위소득으로부터

터 소득의 분산 정도가 클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한다는 설정을 통해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지수로 표시한 것으로 이 지수는 체계적인 공리체계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상대적인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로렌츠 곡선(Lorenz curve)으로부터 지수가 유도되었다(Wolfson[1997]).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 일종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전체 가구에서 중간 60%의 가구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양쪽 끝에 있는 가구들을 각각 빈곤층과 상위층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이 세가지 정의에 따라 전국자료인 가구소비실태조사(1996, 2000)와 가계조사(2006)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봤을 때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68.5%에서 2006년 58.5%로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른 소득기준도 유사한 추이를 보였고 중산층의 몰락 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W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2000년 이후에는 그 증가세가 감소하였다. 또한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중위 60%에 속한 가구)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6년 54.3%에서 2000년 51.6%로 감소했으나, 2006년 다시 54.7%로 증가하였다.

도시가계조사(1982~2007)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중산층의 비중(중위소득의 50%~150%)이 1992년 75%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완만한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65%까지 급락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다. 또한 중산층의 몰락 정도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2년까지는 개선되었으며, 외환위기 이전까지 유사한 추이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산층의 소득점유율은(중위 60%에 속한 가구) 1997년 56%까지 완만한 증가 추이를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53%로 하락, 이후 54%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다시 감소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 노동패널데이터 분석에 의한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변화 추이

남준우(2007)는 1999~2005년의 노동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연도별로 중산층의 비중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이와 더불어 시간에 따른 소득이동을 분석함에 따라 중산층에서 이탈한 계층이 소득분포에서 어느 계층으로 이동하였는지를 관찰하였다. 중산층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축소한다는 중산층의 쇠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1인당 가구소득의 금액에 따라 전체 표본을 하위층, 중산층, 상위층으로 구분하여 비

중을 구하였는데 여기서 각 계층을 구분함에 있어서 중산층은 중위소득의 75%~150%로 두었다. 또한 극빈층과 최상위층의 비중도 구하였는데 극빈층은 각 연도별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를 의미하며, 여기서 최상위층이란 Duncan et al.(1991)에서와 같이 1인당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배 이상인 가구를 의미한다.

### 3. 중위소득분위 기준에 의한 중산층의 규모 및 변화 추이현황

#### 가. Data의 설명

본 연구에서 사용된 Data는 가계동향조사의 1990, 2000, 2010년 자료로 본 자료를 이용하여 2인 이상 도시가구의 중산층의 비중변화를 관찰하였다. 가계동향조사는 1942년 일제말기에 시작하여 1945년 해방 당시까지 계속하였으나 그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1950년 1월부터 한국은행과 통계국에서 공동사업으로 착수한 서울시 봉급생활자 120가구에 대한 가계조사가 처음이었다. 6.25가 발발하고 전시 하에서 부산의 50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소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생계비조사를 유의표본추출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이후 몇 차례에 걸쳐 지역과 가구수를 확대하였으나, 조사방법에 있어서 일부 근로자층을 대상으로 한 제한된 조사였다.

1959년 10월부터는 이를 전면 개편하여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방법을 변경하였다. 1963년 1월부터는 정부통계의 강화조치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통계청(당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으로 이관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그 후 다목적 표본설계 계획에 따라 1969년, 1972년, 1977년, 1983년,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008년 9회에 걸쳐 표본개편을 실시하였다. 2003년부터 조사대상 범위를 동지역 비농어가에서 읍·면지역의 비농어가까지 확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명칭을 『도시가계조사』에서 『가계조사』로 변경하였다. 2006년부터 조사대상을 1인 가구까지 확대하여 조사·공표하였으며, 2008년에는 조사명칭이 「가계동향조사」로 변경되었다.

조사대상은 가구단위이고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일반가구, 집단시설가구, 외국인 가구로 구분되는데 그중 조사대상 가구는 전국 동읍면에 거주하는 1인 이상의 일반가구중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이다. 농가, 임가, 어가, 음식숙박 겸용주택 가구, 장기출타가구, 일반가구 중

비혈연가구, 외국인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 7대 도시(특별시와 광역시)와 9개 도로 우선 층화하고, 각 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다시 구분하여 전국을 25개 지역으로 층화하였고 과거의 표본오차를 활용하여 25개 지역별로 표본규모를 산정하였다. 가계동향조사의 가중치는 설계가중치와 무응답 가중치를 적용하고 사후가중한 가중치를 가구별로 부여하였다. 가중치의 총합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농가를 제외한 일반가구의 수를 나타내며 매년 추계가구 및 농가가구 등을 이용하여 변경하도록 설계되었다.

## 나. 주요변수

### 1) 소득변수

가구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 자영업으로부터의 사업소득(혼합소득), 자산으로부터 이자, 배당금 등의 재산소득, 정부, 타가구, 비영리단체 등으로부터 이전되는 이전소득 등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월평균 경상소득변수를 사용하였고,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가격을 2010년으로 고정시켰다.

또한 각 가구별 가구원의 수로 소득을 균등화한 뒤 분석하였는데, 균등화 소득이란 소득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원 개개인의 소득으로 재구성하여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 후생수준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득을 표준화 한 것이다. 예를 들어, 1인 200만원으로 사는 가구가 결혼하여 2인가구가 된 경우에 동일한 후생수준을 누리기 위해서는 4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거주함으로써 추가 구입 없이 공동 사용할 수 있는 주택이나 가구 등은 공유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구매에도 규모의 경제가 수반됨에 따라 절약되어 283만원( $200 \times \sqrt{2}$ ) 만 있어도 동일한 후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 2) 지출변수

가계지출은 실질적으로 가계의 자산이 감소되는 지출로써,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어 있다. 소비지출은 생계 및 생활을 위해 소비하는 내구재, 비내구재, 준내

구재의 상품 및 서비스의 구입에 대한 대가로 지출하는 비용이고 비소비지출은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비영리단체로 이전, 가구간 이전 등 소비지출 및 자산구입이 아닌 금액이다. 소비지출 변수를 소득변수와 마찬가지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2010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가격을 2010년으로 고정시켰다. 또한 각 가구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균등화하였다.

### 3) 연령계층변수

가구주의 나이에 따른 비율을 소득수준별로 관찰하기 위하여 우선 10대에서 90대 까지를 관찰한 후 다시 3개 연령그룹(30대, 40·50대, 60대 이상)으로 나누어 다시 분석하였다.

### 4) 종사상지위변수

1990년의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중 공무원, 사무종사자(임시 및 일용포함), 기능·상용노무자, 생산(임시 및 일용)을 근로자에 포함시켰고, 상인(자영업주),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를 자영자에, 무직과 기타를 기타직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2000년의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중 공무원, 사무종사자(임시 및 일용포함), 기능·상용노무자, 생산(임시 및 일용)을 근로자에 포함시켰고, 자영업주,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를 자영자에, 무직을 기타직에 포함시켰다. 2010년의 가구주 종사상지위는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를 근로자에 포함시켰고,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를 자영자에, 기타를 기타직에 포함시켰다.

또한 1990년, 2000년에는 무응답이 없는 반면 2010년에는 저소득층의 경우 무응답이 46%에 달하는데 그 이유는 2005년 이후부터 산업분류와 직업분류에서 기타직에 속한 사람들이 종사상지위에는 무응답처리 되었기 때문으로 2010년 종사상지위 변수의 무응답을 기타직에 포함시켰다.

## 다. 가구균등화 소득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 1) 경상소득

1990년 기준 중위소득은 92만원이고, 10년 후인 2000년에는 49만원이 증가한 141만원으로 53.3% 상승하였다. 2010년의 중위소득은 179만원으로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38만원이 증가하여 27.0% 상승하였다.

〈표 3-1〉 균등화 경상소득(실질)기준 평균 및 중위소득

|       | 표본수   | 월평균 균등화 소득 | 균등화 중위소득   |
|-------|-------|------------|------------|
| 1990년 | 9,298 | 1,023,305원 | 919,321원   |
| 2000년 | 6,413 | 1,548,805원 | 1,405,781원 |
| 2010년 | 7,415 | 1,984,867원 | 1,787,774원 |

자료: 가계동향조사(1990, 2000, 2010) 자료

〈표 3-2〉 소득계층별 평균소득

(단위: 원)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342,026 | 709,255   | 1,112,687 | 1,562,510 | 2,161,996 | 3,562,986 |
| 2000 | 499,331 | 1,078,073 | 1,705,041 | 2,389,094 | 3,262,073 | 5,000,730 |
| 2010 | 596,145 | 1,378,323 | 2,178,086 | 3,071,344 | 4,249,721 | 6,354,765 |

### 2) 중위소득기준 계층별 비중변화

#### 가) 소득계층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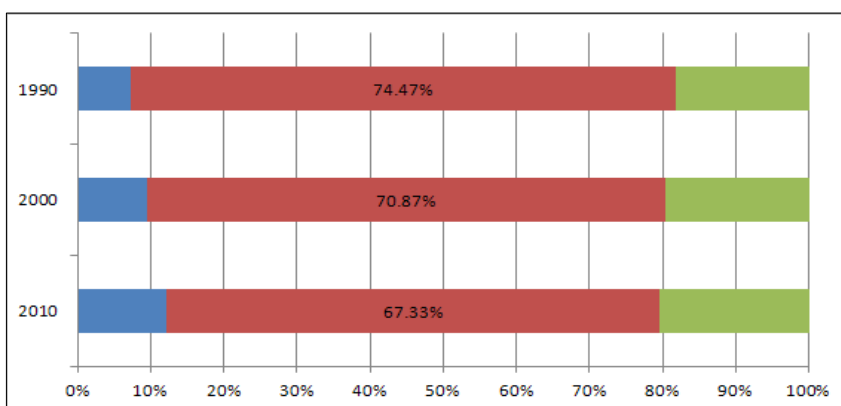
1990년 기준 중산층규모(중위소득 50%~150%)는 74.47%로 조사되었으나 20년 후인 2010년에는 67.33%로 7.14%p 감소하였다. 또한, 저소득층(중위소득 50%미만)은 4.9%p증가하였고 고소득층(중위소득 150%이상)도 2.23%p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3〉 균등화 경상소득기준 소득계층별 비중

(단위: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7.34  | 42.66 | 31.81 | 11.41 | 5.59  | 1.20  |
| 2000 | 9.55  | 40.45 | 30.42 | 12.34 | 6.35  | 0.89  |
| 2010 | 12.24 | 37.77 | 29.56 | 12.48 | 6.69  | 1.26  |

[그림 3-1] 균등화 경상소득기준 중산층의 비중변화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중산층은 감소하고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층간 비중변화는 인근계층으로 비중이 변화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감소한 중산층 7.14%p의 구성변화를 가늠해 보기 위해 중산층을 2개의 소득계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동기간 중 하위중산층(중위소득 50% ~ 100%)은 4.89%p 감소하였고 상위중산층(중위소득 ~ 150%)은 2.25%p 감소하였다. 하위중산층 감소규모인 4.89%p는 저소득층 증가규모인 4.9%p와 일치한다. 또한, 상위중산층의 감소규모 2.25%p는 고소득층 증가규모인 2.23%p와 일치한다.

10년 단위로 분석한 비중변화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 감소한 하위중산층 규모는 2.21%p와 동기간 증가한 저소득층 규모인 2.21%p가 일치한다. 상위중산층의 감소규모인 1.39%p는 고소득층 증가폭인 1.38%p와 거의 일치한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감소한 하위중산층 규모 2.68%p는 동기간 증가한 저소득층규모인 2.69%p와 일치하며 상위중산층 감소규모인 0.86%p는 고소득층 증가규모인 0.85%p와 일치한다.

〈표 3-4〉 중산층의 규모변화

(단위: %p)

|                    | 조사기간      |           |           |
|--------------------|-----------|-----------|-----------|
|                    | 1990~2000 | 2000~2010 | 1990~2010 |
| 고소득층진입규모<br>(A)    | 1.39      | 0.86      | 2.25      |
| 저소득층진입규모<br>(B)    | 2.21      | 2.68      | 4.89      |
| 중산층의 규모변화<br>(A-B) | -0.82     | -1.82     | -2.64     |

중산층을 중심으로 계층간 비중변화를 추정해보면 저소득층의 구성변화 규모 4.89%p와 고소득층의 구성변화 2.25%p를 순계하면 하방이동의 순계는 2.64%p로 계산된다.

#### 나) 소득계층별 가구주의 연령 비중변화

소득계층별 가구주연령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저소득층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9.32%이고 2000년에는 30.86%, 그리고 2010년에는 15.91%로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40대와 50대를 합친 중년층이 저소득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7.43%, 2000년은 37.78%, 그리고 2010년에는 41.0%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하위중산층의 경우, 1990년 30대의 구성비는 47.31%, 2000년 35.90%, 그리고 2010년은 25.83%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년층(40대~50대)의 구성비는 1990년 36.33%, 2000년 46.75, 그리고 2010년에는 57.60%로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구성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연령은 60대 이상이다. 저소득층(중위소득 50%미만)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중이 1990년 7.95%였으나 2000년에는 24.39%, 그리고 2010년에는 40.57%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중산층의 경우, 60대 이상의 비중이 1990년 2.41%, 2000년 8.97%, 2010년 13.51%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비중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만큼 상대적 규모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연령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3-5〉 소득계층별 3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39.32) | 1<br>(47.31) | 1<br>(42.37) | 1<br>(32.31) | 1<br>(29.36) | 1<br>(18.68) |
| 1990~2000 | 0.78         | 0.76         | 0.84         | 0.82         | 0.83         | 1.06         |
| 2000~2010 | 0.52         | 0.72         | 0.68         | 0.85         | 0.89         | 0.90         |
| 1990~2010 | 0.40         | 0.55         | 0.57         | 0.70         | 0.74         | 0.95         |

1990년 기준 30대의 소득계층별비중을 1로 보고 2000년과 2010년의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 저소득계층의 경우, 1990년 39.32%를 1로 보는 경우, 2000년은 0.78, 2010년 0.40로 계산된다. 모든 소득계층에서 30대의 구성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소득수준이 상승할수록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 저소득계층 0.40부터 상위고소득 0.95까지 소득계층이 상승할수록 감소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년층(40대~50대)의 경우,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중산층의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의 구성비는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중산층은 1.59배, 상위중산층은 1.41배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6〉 소득계층별 40~5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37.43) | 1<br>(36.33) | 1<br>(45.45) | 1<br>(58.40) | 1<br>(61.72) | 1<br>(71.77) |
| 1990~2000 | 1.01         | 1.29         | 1.15         | 1.03         | 1.07         | 1.05         |
| 2000~2010 | 1.09         | 1.23         | 1.23         | 1.10         | 1.05         | 0.94         |
| 1990~2010 | 1.10         | 1.59         | 1.41         | 1.14         | 1.13         | 0.98         |

60대 이상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여 중위고소득층과 상위고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 구성비가 5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소득계층별 구성비의 변화만을 살펴볼 때, 60대 이상의 비중이 증가한 것이 저소득계층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0대 이상의 저소득계층 구성비는 2010년 5.1배 증가하였고 하위중산층은 5.6배, 상위중산층은 7.38배 하위고소득층은 5.19배 등으로 특정 계층의 구성비가 차별적으로 증가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표 3-7〉 소득계층별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7.95) | 1<br>(2.41) | 1<br>(1.33) | 1<br>(1.78) | 1<br>(3.78) | 1<br>(8.15) |
| 1990~2000 | 3.07        | 3.72        | 5.05        | 4.78        | 1.74        | 0.36        |
| 2000~2010 | 1.66        | 1.51        | 1.46        | 1.09        | 1.23        | 3.97        |
| 1990~2010 | 5.10        | 5.61        | 7.38        | 5.20        | 2.15        | 1.42        |

#### 다) 종사상지위의 비중변화

지난 20년간 저소득계층의 근로자비중은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근로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8〉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54.36) | 1<br>(69.07) | 1<br>(68.0) | 1<br>(66.42) | 1<br>(58.99) | 1<br>(49.62) |
| 1990~2000 | 0.70         | 0.79         | 0.87        | 0.93         | 1.11         | 1.01         |
| 2000~2010 | 1.00         | 1.12         | 1.13        | 1.15         | 1.14         | 1.54         |
| 1990~2010 | 0.70         | 0.89         | 0.99        | 1.07         | 1.27         | 1.55         |

지난 20년간 자영업자의 구성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소득계층은 1990년에 비해 2010년 0.62배로 0.38배 감소하였고 상위중산층부터는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자영업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자영업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23.66) | 1<br>(26.56) | 1<br>(30.15) | 1<br>(30.37) | 1<br>(39.42) | 1<br>(48.05) |
| 1990~2000 | 0.85         | 1.35         | 1.10         | 1.02         | 0.75         | 1.02         |
| 2000~2010 | 0.73         | 0.74         | 0.75         | 0.75         | 0.63         | 0.23         |
| 1990~2010 | 0.62         | 1.01         | 0.83         | 0.76         | 0.47         | 0.23         |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로자의 비중은 고소득계층에서 증가한 반면 자영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고소득층은 자영자 보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소득층의 경우,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자도 아닌 기타로 분류된 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저소득계층에서 기타의 구성비는 1990년 21.98%이나 2000년 41.65% 그리고 2010년에는 기타와 결측값의 비중을 합쳐 47%에 달한다. 저소득층은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자도 아닌 기타직의 증가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 라)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의 비중변화

지난 20년간 30대 저소득계층의 근로자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근로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50대 저소득 계층과 하위 중산층의 근로자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근로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10〉 30대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61.77) | 1<br>(72.79) | 1<br>(73.53) | 1<br>(66.91) | 1<br>(65.94) | 1<br>(50.08) |
| 1990~2000 | 0.73         | 0.83         | 0.94         | 1.08         | 1.20         | 1.37         |
| 2000~2010 | 1.03         | 1.25         | 1.19         | 1.20         | 1.14         | 1.26         |
| 1990~2010 | 0.75         | 1.04         | 1.12         | 1.29         | 1.37         | 1.72         |

〈표 3-11〉 4,50대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50.42) | 1<br>(59.84) | 1<br>(61.03) | 1<br>(64.46) | 1<br>(55.28) | 1<br>(50.03) |
| 1990~2000 | 0.85         | 0.85         | 0.89         | 0.90         | 1.12         | 0.93         |
| 2000~2010 | 1.16         | 1.15         | 1.18         | 1.20         | 1.22         | 1.75         |
| 1990~2010 | 0.98         | 0.98         | 1.05         | 1.08         | 1.36         | 1.63         |

60대 이상은 중간소득계층(하위중산층~하위고소득)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저소득계층과 고소득계층(중위고소득~상위고소득)의 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2〉 60대 이상 근로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23.96) | 1<br>(36.69) | 1<br>(24.21) | 1<br>(36.24) | 1<br>(39.68) | 1<br>(38.48) |
| 1990~2000 | 0.71         | 0.93         | 1.11         | 1.08         | 1.10         |              |
| 2000~2010 | 1.36         | 1.18         | 1.66         | 1.02         | 0.60         |              |
| 1990~2010 | 0.97         | 1.09         | 1.84         | 1.10         | 0.66         | 0.90         |

지난 20년간 30대 저소득계층의 자영자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자영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50대 저소득 계층의 자영자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가 하위중산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나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다시 자영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은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특히 하위중산층을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13〉 30대 자영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28.90) | 1<br>(25.05) | 1<br>(25.33) | 1<br>(31.22) | 1<br>(33.29) | 1<br>(49.92) |
| 1990~2000 | 0.97         | 1.46         | 1.15         | 0.81         | 0.62         | 0.63         |
| 2000~2010 | 0.74         | 0.48         | 0.49         | 0.40         | 0.27         | 0.34         |
| 1990~2010 | 0.72         | 0.70         | 0.56         | 0.32         | 0.17         | 0.22         |

〈표 3-14〉 4,50대 자영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26.43) | 1<br>(34.82) | 1<br>(36.60) | 1<br>(32.16) | 1<br>(42.88) | 1<br>(46.73) |
| 1990~2000 | 0.86         | 1.22         | 1.04         | 1.10         | 0.77         | 1.11         |
| 2000~2010 | 0.72         | 0.77         | 0.78         | 0.76         | 0.58         | 0.23         |
| 1990~2010 | 0.62         | 0.94         | 0.81         | 0.84         | 0.45         | 0.26         |

〈표 3-15〉 60대 이상 자영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18.86) | 1<br>(26.70) | 1<br>(60.96) | 1<br>(43.65) | 1<br>(59.21) | 1<br>(61.52) |
| 1990~2000 | 0.44         | 0.82         | 0.55         | 0.71         | 0.63         | 1.63         |
| 2000~2010 | 1.42         | 1.13         | 0.72         | 1.03         | 1.30         | 0.06         |
| 1990~2010 | 0.63         | 0.93         | 0.40         | 0.73         | 0.81         | 0.11         |

지난 20년간 대체로 모든 연령대의 기타직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30대 저소득계층에서 기타직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하위고소득 계층에서부터 소득계층이 감소할수록 기타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모든 연령대의 기타직 비중은 중위고소득계층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표 3-16〉 30대 기타직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9.33) | 1<br>(2.15) | 1<br>(1.14) | 1<br>(1.86) | 1<br>(0.77) | 1<br>(0.00) |
| 1990~2000 | 2.91        | 1.55        | 1.34        | 1.22        |             |             |
| 2000~2010 | 1.22        | 2.15        | 2.37        | 1.48        |             |             |
| 1990~2010 | 3.55        | 3.33        | 3.18        | 1.81        | 5.45        |             |

〈표 3-17〉 4,50대 기타직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23.15) | 1<br>(5.34) | 1<br>(2.37) | 1<br>(3.38) | 1<br>(1.84) | 1<br>(3.24) |
| 1990~2000 | 1.49         | 1.26        | 3.23        | 1.92        | 2.84        | 0.46        |
| 2000~2010 | 0.99         | 1.33        | 0.79        | 0.50        | 1.00        | 4.31        |
| 1990~2010 | 1.48         | 1.68        | 2.56        | 0.96        | 2.85        | 1.99        |

〈표 3-18〉 60대 이상 기타직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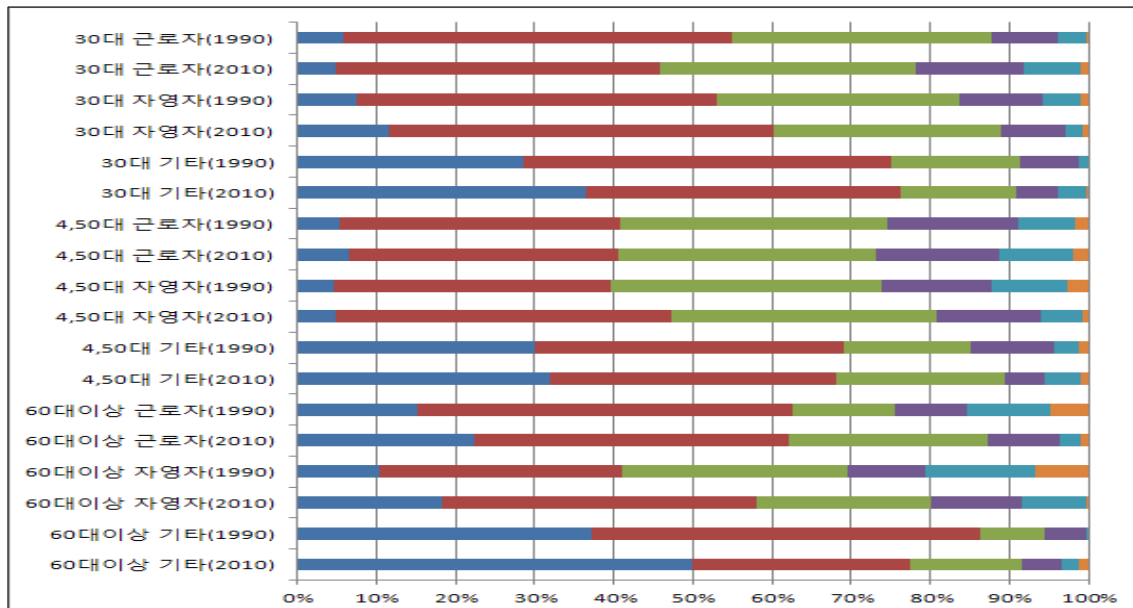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57.18) | 1<br>(36.61) | 1<br>(14.82) | 1<br>(20.10) | 1<br>(1.10) | 1<br>(0.00) |
| 1990~2000 | 1.31         | 1.20         | 2.66         | 1.48         | 17.40       |             |
| 2000~2010 | 0.87         | 0.80         | 0.79         | 0.95         | 1.35        |             |
| 1990~2010 | 1.14         | 0.96         | 2.10         | 1.40         | 23.55       |             |

〈표 3-19〉 소득계층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30대 근로자    | 5.93  | 48.9  | 32.98 | 8.21  | 3.6   | 0.37  |
|           | 30대 자영자    | 7.51  | 45.5  | 30.72 | 10.36 | 4.91  | 1     |
|           | 30대 기타     | 28.68 | 46.29 | 16.36 | 7.32  | 1.35  |       |
|           | 4,50대 근로자  | 5.3   | 35.51 | 33.78 | 16.45 | 7.3   | 1.65  |
|           | 4,50대 자영자  | 4.7   | 34.96 | 34.27 | 13.89 | 9.58  | 2.6   |
|           | 4,50대 기타   | 29.95 | 38.98 | 16.15 | 10.62 | 2.98  | 1.31  |
|           | 60대 이상 근로자 | 15.09 | 47.53 | 12.81 | 9.3   | 10.54 | 4.72  |
|           | 60대 이상 자영자 | 10.49 | 30.55 | 28.5  | 9.9   | 13.89 | 6.67  |
| 2010      | 30대 근로자    | 4.98  | 40.75 | 32.43 | 13.52 | 7.24  | 1.07  |
|           | 30대 자영자    | 11.55 | 48.58 | 28.76 | 8.11  | 2.31  | 0.69  |
|           | 30대 기타     | 36.52 | 39.66 | 14.61 | 5.38  | 3.45  | 0.37  |
|           | 4,50대 근로자  | 6.63  | 33.94 | 32.6  | 15.46 | 9.43  | 1.93  |
|           | 4,50대 자영자  | 4.87  | 42.35 | 33.47 | 13.28 | 5.38  | 0.65  |
|           | 4,50대 기타   | 31.91 | 36.19 | 21.29 | 5     | 4.55  | 1.06  |
|           | 60대 이상 근로자 | 22.37 | 39.73 | 25.22 | 8.95  | 2.75  | 0.98  |
|           | 60대 이상 자영자 | 18.34 | 39.72 | 22    | 11.52 | 8.13  | 0.29  |
| 60대 이상 기타 | 49.92      | 27.58 | 13.99 | 5.02  | 2.17  | 1.32  |       |

[그림 3-2] 소득계층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지난 20년간 고소득계층에서는 60대 이하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졌고 저소득층에서는 모든 연령대 기타직의 비중이 높아졌으며 저소득층과 하위중산층에서는 모든

연령대 자영자의 비중이 높아졌다.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 가구 이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결론은 근로자는 갈수록 소득계층이 높아지지만 자영업이나 기타직으로는 소득계층이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라. 가구균등화 지출수준(2인 이상 도시가구)

소득기준이 아닌 지출수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해 보았다. 중산층은 균등화 소득과 동일하게 상대적 비중으로 중위 균등화 지출의 0.5~1.5배 이내를 중산층으로 구분하여 지난 20년간 구성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 1) 소비지출

가구균등화에 의한 1990년 기준 중위지출은 59만원이고, 10년 후인 2000년에는 39만원이 증가한 98만원으로 66.1% 상승하였다. 2010년의 중위지출은 119만원으로 10년 전인 2000년에 비해 21만원이 증가하여 21.4% 상승하였다.

〈표 3-20〉 균등화 소비지출(실질)기준 평균 및 중위지출

|       | 표본수   | 월평균 균등화 지출 | 균등화 중위지출   |
|-------|-------|------------|------------|
| 1990년 | 9,298 | 688,047원   | 586,167원   |
| 2000년 | 6,413 | 1,097,925원 | 980,474원   |
| 2010년 | 7,415 | 1,303,488원 | 1,193,034원 |

가계지출기준에 의하면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중위지출은 50만원이 증가하여 69.4%가 상승하였고 2000년부터 2010년 기간에는 31만원이 증가하여 25.4%가 상승하였다.

〈표 3-21〉 지출수준별 평균지출

(단위: 원)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251,677 | 458,492 | 711,934   | 1,001,835 | 1,383,522 | 2,487,421 |
| 2000 | 408,288 | 764,370 | 1,186,247 | 1,671,036 | 2,325,702 | 3,663,669 |
| 2010 | 477,998 | 928,916 | 1,441,271 | 2,038,892 | 2,815,860 | 4,090,573 |

## 2) 중위지출기준 계층별 비중변화

### 가) 지출수준별 계층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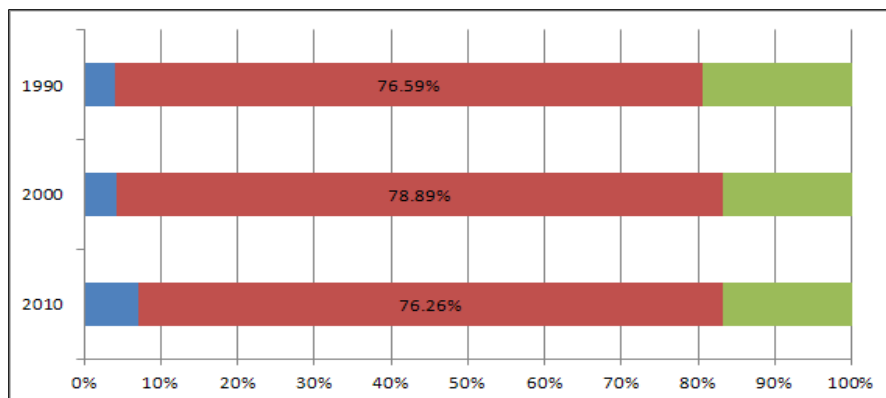
1990년 기준 중산층규모(중위지출 50%~150%)는 76.59%이고 20년 후인 2010년에는 76.26%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저지출계층(중위지출 50%미만)은 2.96%p 증가하였고 고지출계층(중위지출 150%이상)은 2.63%p 감소하였다.

〈표 3-22〉 균등화 소비지출기준 지출수준별 비중

(단위: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4.08  | 45.90 | 30.69 | 10.75 | 6.55  | 2.03  |
| 2000 | 4.34  | 45.65 | 33.24 | 10.74 | 4.73  | 1.29  |
| 2010 | 7.04  | 42.96 | 33.30 | 11.38 | 4.62  | 0.70  |

[그림 3-3] 균등화 소비지출기준 중산층의 비중변화



중산층 규모는 변화가 거의 없고 저지출계층은 증가하였으며 고지출계층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계층간 이동은 인근계층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가정일 것으로 판단된다. 1990년에서 2010년까지 20년 동안 감소한 중산층 0.33%p의 구성변화를 가늠해 보기 위해 중산층을 2개의 지출수준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동기간 중 하위중산층(중위지출 50% ~ 100%)은 2.94%p 감소하였고 상위중산층(중위지출 ~ 150%)은 2.61%p 증가하였다. 하위중산층 감소규모인 2.94%p는 저지출계층 증가규모인 2.96%p와 거의 일치한다. 또한, 상위중산층의 증가규모 2.61%p는 고지출계층 감소규모인 2.63%p와 거의 일치한다.



10년 단위로 분석한 규모변화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 동안 감소한 하위중산층 규모 0.25%p와 동기간 증가한 저지출계층 규모인 0.26%p가 거의 일치한다. 상위중산층의 증가규모인 2.55%p는 고지출계층 감소폭인 2.57%p와 거의 일치한다. 200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 동안 감소한 하위중산층 규모 2.69%p는 동기간 증가한 저지출계층 규모인 2.7%p와 일치하며 상위중산층 증가규모인 0.06%p는 고지출계층 감소규모인 0.06%p와 일치한다.

〈표 3-23〉 중산층의 규모변화

(단위: %p)

|                    | 조사기간      |           |           |
|--------------------|-----------|-----------|-----------|
|                    | 1990~2000 | 2000~2010 | 1990~2010 |
| 중산층변화규모<br>(A)     | 2.57      | 0.06      | 2.63      |
| 저지출층변화규모<br>(B)    | 0.25      | 2.69      | 2.94      |
| 중산층의 규모변화<br>(A+B) | 2.82      | 2.75      | 5.57      |

중산층을 중심으로 계층간 변화를 추정해 보면 저지출계층의 변화 규모 2.94%p와 중산층의 구성비변화 2.63%p를 순계하면 하방구성의 순계는 5.57%p로 계산된다.

#### 나) 지출계층별 가구주의 연령 비중변화

지출수준별 가구주연령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저지출계층에서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44.27%이고 2000년에는 27.62%, 그리고 2010년에는 9.01%로 급격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40대와 50대를 합친 중년층이 저지출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27.91%, 2000년은 36.52%, 2010년에는 33.05%로 변화였다. 하위중산층의 경우, 1990년 30대의 구성비는 50.32%, 2000년 37.89%, 그리고 2010년은 25.52%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중년층(40대~50대)의 구성비는 1990년 33.73%, 2000년 43.74%, 그리고 2010년에는 55.55%로 큰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별 구성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연령은 60대 이상이다. 저지출계층(중위지출 50%미만)의 경우, 노인계층의 비중이 1990년 6.74%였으나 2000년에는 30.65%, 그리고 2010년에는 55.86%로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위중산층의 경우에는 60대 이상의 비중이 1990년 2.05%, 2000년 9.74%, 2010년 15.87%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별 비중은 지난 20년 동

안 인구구조변화를 반영하는 만큼 상대적 규모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연령효과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표 3-24〉 지출수준별 3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44.27) | 1<br>(50.32) | 1<br>(38.61) | 1<br>(32.30) | 1<br>(23.39) | 1<br>(16.59) |
| 1990~2000 | 0.62         | 0.75         | 0.85         | 0.77         | 0.83         | 1.22         |
| 2000~2010 | 0.33         | 0.67         | 0.79         | 0.80         | 0.84         | 0.87         |
| 1990~2010 | 0.20         | 0.51         | 0.67         | 0.61         | 0.70         | 1.06         |

1990년 기준 30대의 지출수준별 비중을 1로 보고 2000년과 2010년의 비중을 계산해 보았다. 저지출계층의 경우, 1990년 44.27%를 1로 보는 경우, 2000년은 0.62, 2010년 0.20로 계산된다. 모든 지출수준에서 30대의 구성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지출수준이 상승할수록 감소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기준 저지출계층 0.20부터 중위고소득 0.70까지 지출수준이 상승할수록 감소폭이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중년층(40대~50대)의 경우, 모든 지출수준에서 구성비중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저지출계층과 중위고지출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25〉 지출수준별 40~50대 가구주의 비중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27.91) | 1<br>(33.73) | 1<br>(49.44) | 1<br>(56.94) | 1<br>(67.85) | 1<br>(64.9) |
| 1990~2000 | 1.31         | 1.30         | 1.11         | 1.10         | 1.01         | 1.06        |
| 2000~2010 | 0.90         | 1.27         | 1.15         | 1.15         | 1.13         | 1.15        |
| 1990~2010 | 1.18         | 1.65         | 1.28         | 1.27         | 1.14         | 1.22        |

노인계층의 경우, 인구구조의 변화가 반영되어 전반적으로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였고 상위고지출계층을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서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상위고지출계층은 크게 감소하였다. 지출수준별 구성비의 변화만을 살펴볼 때, 노인비중이 증가한 것이 저지출수준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들의 저지출계층의 구성비는 2010년 8.29배 증가하였고 하위중산층은 7.74배, 상위중산층은 4.93배 하위고지출계층은 2.38배 등으로 지출수준이 낮아질수록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6〉 지출수준별 60대 이상 가구주의 비중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6.74) | 1<br>(2.05) | 1<br>(1.83) | 1<br>(2.98) | 1<br>(2.20) | 1<br>(10.74) |
| 1990~2000 | 4.55        | 4.75        | 3.85        | 2.78        | 3.73        | 0.73         |
| 2000~2010 | 1.82        | 1.63        | 1.28        | 0.86        | 0.64        | 0.26         |
| 1990~2010 | 8.29        | 7.74        | 4.93        | 2.38        | 2.38        | 0.19         |

#### 다) 종사상지위의 비중변화

지난 20년간 지출기준에 의한 저지출계층의 근로자비중은 다른 지출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출계층이 증가할수록 근로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7〉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중산층의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72.98) | 1<br>(71.89) | 1<br>(64.72) | 1<br>(54.03) | 1<br>(62.65) | 1<br>(39.48) |
| 1990~2000 | 0.62         | 0.80         | 0.90         | 0.99         | 0.71         | 1.05         |
| 2000~2010 | 0.93         | 1.05         | 1.15         | 1.27         | 1.49         | 1.44         |
| 1990~2010 | 0.58         | 0.84         | 1.03         | 1.25         | 1.06         | 1.52         |

또한, 지난 20년간 자영자의 구성비중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지출계층과 하위중산층은 변화가 없지만 상위중산층부터는 자영자의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8〉 자영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15.76) | 1<br>(23.98) | 1<br>(31.76) | 1<br>(39.46) | 1<br>(32.69) | 1<br>(54.98) |
| 1990~2000 | 1.57         | 1.32         | 1.01         | 0.92         | 1.35         | 0.28         |
| 2000~2010 | 0.63         | 0.76         | 0.76         | 0.62         | 0.61         | 0.80         |
| 1990~2010 | 0.99         | 1.00         | 0.77         | 0.58         | 0.83         | 0.63         |

종사상의 지위를 기준으로 분석해 보면 근로자의 비중은 고지출계층에서 증가한 반면 자영자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여 고지출계층은 자영자 보다는 근로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구성비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지출계층의 경우,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자도 아닌 기타로 분류된 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저지출계층에서 기타의 구성비는 1990년 11.27%이나 2000년 29.88% 그리고 2010년에는 기타와 결측값의 비중을 합쳐 42.36%에 달한다. 저지출계층은 근로자도 아니고 자영자도 아닌 기타직의 증가가 특징으로 나타났다.

**라) 연령계층별 종사상지위의 비중변화**

지난 20년간 30대 저지출계층과 하위중산층의 근로자 비중은 소폭 감소하였으나 그 외 계층은 근로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0대와 마찬가지로 4,50대 저지출 계층과 하위 중산층의 근로자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그 외 계층은 근로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9〉 30대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81.05) | 1<br>(74.15) | 1<br>(70.62) | 1<br>(53.88) | 1<br>(71.26) | 1<br>(35.75) |
| 1990~2000 | 0.74         | 0.83         | 0.97         | 1.15         | 0.93         | 1.72         |
| 2000~2010 | 1.28         | 1.18         | 1.21         | 1.35         | 1.11         | 0.86         |
| 1990~2010 | 0.95         | 0.98         | 1.17         | 1.56         | 1.03         | 1.48         |

〈표 3-30〉 4,50대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65.71) | 1<br>(66.79) | 1<br>(57.30) | 1<br>(52.72) | 1<br>(57.98) | 1<br>(40.25) |
| 1990~2000 | 0.74         | 0.85         | 0.95         | 0.98         | 0.64         | 0.94         |
| 2000~2010 | 1.21         | 1.07         | 1.18         | 1.28         | 1.77         | 1.67         |
| 1990~2010 | 0.89         | 0.90         | 1.11         | 1.26         | 1.14         | 1.57         |

60대 이상은 하위중산층, 하위고지출, 상위고지출의 근로자 비중이 증가한 반면 나머지 계층의 근로자 비중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1〉 60대 이상 근로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39.52) | 1<br>(22.13) | 1<br>(47.96) | 1<br>(22.16) | 1<br>(79.85) | 1<br>(10.03) |
| 1990~2000 | 0.60         | 1.39         | 0.64         | 1.20         | 0.45         |              |
| 2000~2010 | 1.10         | 1.26         | 1.19         | 1.19         | 1.40         | 1.27         |
| 1990~2010 | 0.66         | 1.76         | 0.76         | 1.42         | 0.63         | 1.27         |

지난 20년간 30대 모든 계층의 자영자 비중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그중 저지출 계층과 하위고지출계층의 자영자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50대 저지출 계층의 자영자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다가 하위중산층부터는 지출 계층이 증가할수록 자영자의 구성비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0대 이상은 자영자의 비중이 증가한 상위중산층과 중위고지출계층을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2〉 30대 자영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16.98) | 1<br>(23.80) | 1<br>(27.46) | 1<br>(41.35) | 1<br>(26.50) | 1<br>(63.46) |
| 1990~2000 | 1.71         | 1.39         | 1.03         | 0.83         | 1.20         | 0.61         |
| 2000~2010 | 0.21         | 0.51         | 0.46         | 0.29         | 0.65         | 0.99         |
| 1990~2010 | 0.36         | 0.71         | 0.48         | 0.29         | 0.78         | 0.60         |

〈표 3-33〉 4,50대 자영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17.34) | 1<br>(29.37) | 1<br>(38.61) | 1<br>(40.66) | 1<br>(36.96) | 1<br>(53.37) |
| 1990~2000 | 1.90         | 1.23         | 0.96         | 0.97         | 1.39         | 0.82         |
| 2000~2010 | 0.54         | 0.80         | 0.79         | 0.66         | 0.56         | 0.77         |
| 1990~2010 | 1.03         | 0.98         | 0.76         | 0.64         | 0.77         | 0.63         |

〈표 3-34〉 60대 이상 자영자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24.97) | 1<br>(35.74) | 1<br>(23.93) | 1<br>(50.88) | 1<br>(10.57) | 1<br>(82.98) |
| 1990~2000 | 0.57         | 0.66         | 0.86         | 0.64         | 2.76         | 0.79         |
| 2000~2010 | 1.15         | 0.94         | 1.26         | 0.73         | 1.03         | 0.77         |
| 1990~2010 | 0.65         | 0.62         | 1.08         | 0.47         | 2.85         | 0.61         |

지난 20년간 대체로 모든 연령대의 기타직 비중이 증가하였고, 특히 30대 저지출계층에서 기타직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하위고지출 계층에서부터 지출계층이 감소할수록 기타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5〉 30대 기타직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1.97) | 1<br>(2.05) | 1<br>(1.92) | 1<br>(4.76) | 1<br>(2.24) | 1<br>(0.79) |
| 1990~2000 | 5.58        | 2.52        | 1.83        | 0.77        | 0.83        | 0.00        |
| 2000~2010 | 1.54        | 2.04        | 1.17        | 1.14        | 3.08        |             |
| 1990~2010 | 8.62        | 5.14        | 2.15        | 0.88        | 2.57        | 11.28       |

〈표 3-36〉 4,50대 기타직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16.95) | 1<br>(3.85) | 1<br>(4.09) | 1<br>(6.62) | 1<br>(5.06) | 1<br>(6.38) |
| 1990~2000 | 1.09         | 1.93        | 2.07        | 1.33        | 2.24        | 2.89        |
| 2000~2010 | 1.26         | 1.45        | 0.81        | 0.85        | 0.48        | 0.18        |
| 1990~2010 | 1.38         | 2.80        | 1.68        | 1.13        | 1.08        | 0.52        |

〈표 3-37〉 60대 이상 기타직의 지출수준별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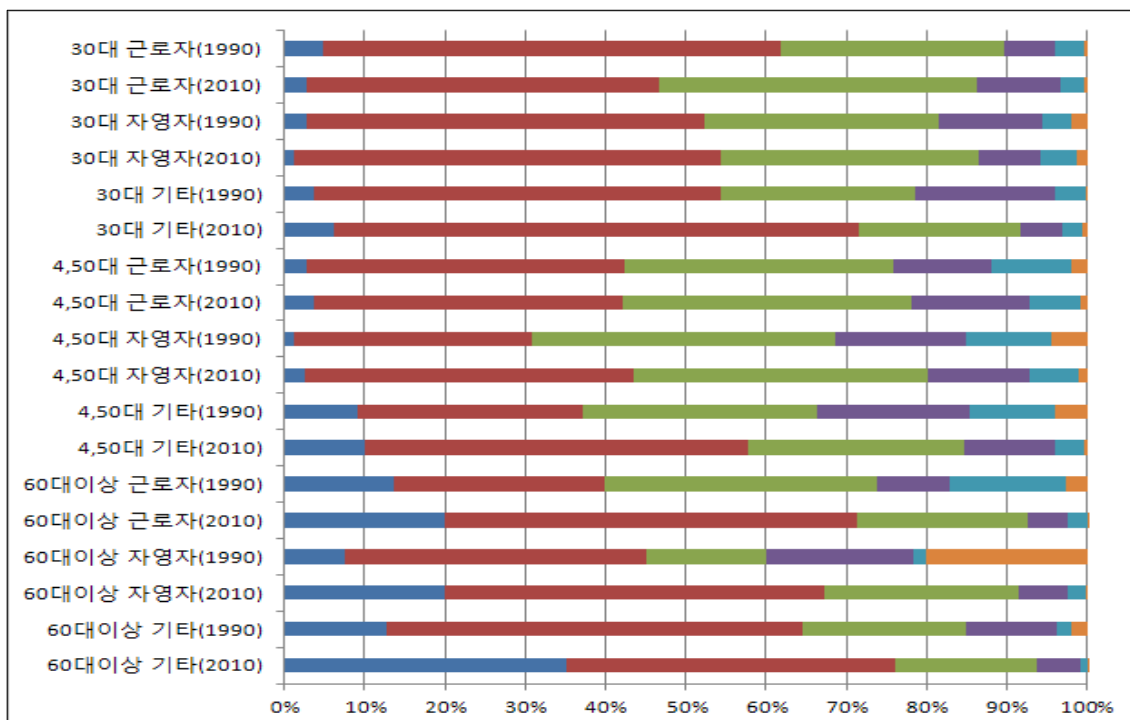
(단위: 배수,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1<br>(35.50) | 1<br>(42.13) | 1<br>(28.11) | 1<br>(26.97) | 1<br>(9.59) | 1<br>(6.99) |
| 1990~2000 | 1.75         | 1.08         | 1.74         | 1.51         | 3.65        | 4.93        |
| 2000~2010 | 0.93         | 0.85         | 0.77         | 1.09         | 0.56        | 1.07        |
| 1990~2010 | 1.63         | 0.93         | 1.34         | 1.65         | 2.06        | 5.26        |

〈표 3-38〉 지출수준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30대 근로자    | 4.87  | 57.01 | 27.86 | 6.23  | 3.64  | 0.4   |
|           | 30대 자영자    | 2.76  | 49.46 | 29.28 | 12.92 | 3.66  | 1.92  |
|           | 30대 기타     | 3.79  | 50.44 | 24.21 | 17.61 | 3.66  | 0.28  |
|           | 4,50대 근로자  | 2.86  | 39.59 | 33.29 | 12.35 | 9.87  | 2.03  |
|           | 4,50대 자영자  | 1.28  | 29.45 | 37.95 | 16.12 | 10.65 | 4.55  |
|           | 4,50대 기타   | 9.08  | 28.06 | 29.21 | 19.09 | 10.6  | 3.96  |
|           | 60대 이상 근로자 | 13.67 | 26.28 | 33.92 | 8.94  | 14.44 | 2.75  |
|           | 60대 이상 자영자 | 7.63  | 37.5  | 14.95 | 18.13 | 1.69  | 20.1  |
| 2010      | 30대 근로자    | 2.7   | 44.01 | 39.43 | 10.42 | 3.08  | 0.36  |
|           | 30대 자영자    | 1.12  | 53.24 | 32.19 | 7.62  | 4.49  | 1.35  |
|           | 30대 기타     | 6.1   | 65.43 | 20.05 | 5.32  | 2.47  | 0.62  |
|           | 4,50대 근로자  | 3.65  | 38.54 | 35.94 | 14.63 | 6.3   | 0.94  |
|           | 4,50대 자영자  | 2.47  | 40.97 | 36.67 | 12.69 | 6.09  | 1.12  |
|           | 4,50대 기타   | 10.1  | 47.65 | 26.86 | 11.42 | 3.62  | 0.35  |
|           | 60대 이상 근로자 | 19.89 | 51.48 | 21.3  | 4.93  | 2.36  | 0.04  |
|           | 60대 이상 자영자 | 19.99 | 47.2  | 24.26 | 6.03  | 2.28  | 0.23  |
| 60대 이상 기타 | 35.07      | 41.09 | 17.47 | 5.56  | 0.74  | 0.08  |       |

[그림 3-4] 지출수준별 연령, 종사상지위의 구성비 변화



지출수준을 기준으로 계층을 분류해 본 결과 지난 20년간 저지출계층, 하위중산층에서는 40대 이상 모든 종사상지위의 비중이 높아졌고 30대는 근로자는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층, 자영자는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기타직은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에서의 비중이 높아졌다. 가계동향조사의 도시 2인 가구 이상 자료를 이용한 분석의 결론은 30대 근로자와 자영자는 20년 전에 비해 소비지출을 많이 하였으나 그 외에는 갈수록 소비지출을 적게 한다는 것이다.

**마. 소득계층별 적자, 흑자의 비중변화**

균등화 경상소득에서 균등화 소비지출을 뺀 금액이 음(-)이면 적자, 양(+)이면 흑자로 보고 각각의 소득계층별 비중과 평균금액을 조사하였다. 지난 20년간 저소득계층 ~ 하위고소득층에서는 적자가구원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중위고소득과 상위고소득층에서는 적자가구원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흑자가구원은 저소득계층 ~ 하위고소득층에서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중위고소득과 상위고소득층에서는 비중이 소폭 상승하였다.

〈표 3-39〉 적자 가구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45.73) | 1<br>(10.46) | 1<br>(5.91) | 1<br>(3.78) | 1<br>(5.86) | 1<br>(4.04) |
| 1990~2000 | 1.23         | 1.55         | 1.20        | 1.82        | 0.79        | 0.72        |
| 2000~2010 | 1.03         | 0.96         | 0.94        | 0.83        | 0.24        | 0.53        |
| 1990~2010 | 1.27         | 1.48         | 1.13        | 1.52        | 0.19        | 0.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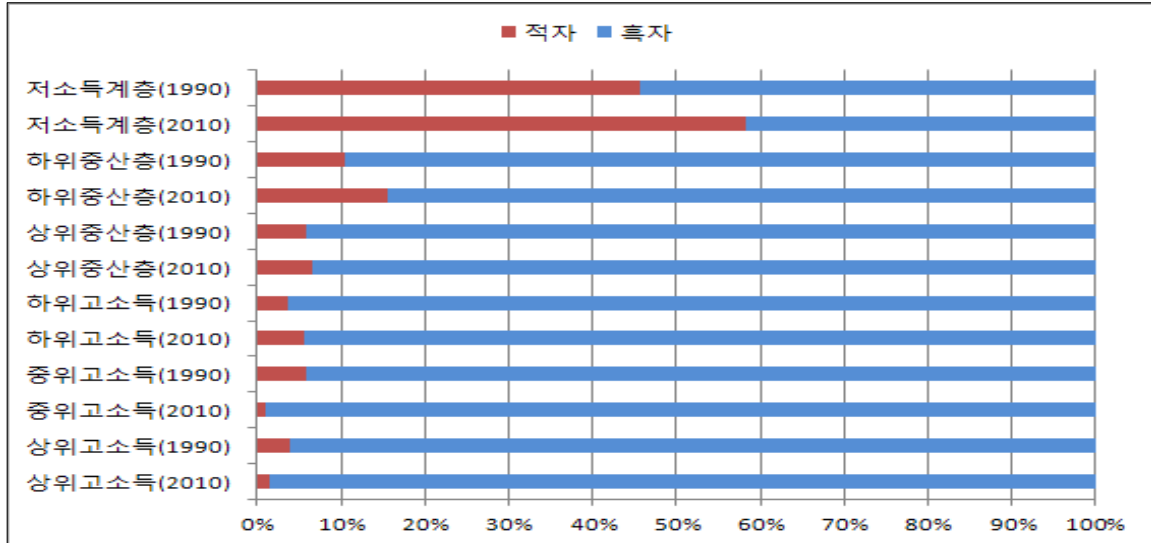
〈표 3-40〉 흑자 가구원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단위: 배수,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1<br>(54.27) | 1<br>(89.54) | 1<br>(94.09) | 1<br>(96.22) | 1<br>(94.14) | 1<br>(95.96) |
| 1990~2000 | 0.80         | 0.94         | 0.99         | 0.97         | 1.01         | 1.01         |
| 2000~2010 | 0.96         | 1.01         | 1.00         | 1.01         | 1.04         | 1.01         |
| 1990~2010 | 0.77         | 0.94         | 0.99         | 0.98         | 1.05         | 1.03         |



[그림 3-5] 적자, 흑자 가구의 소득계층별 구성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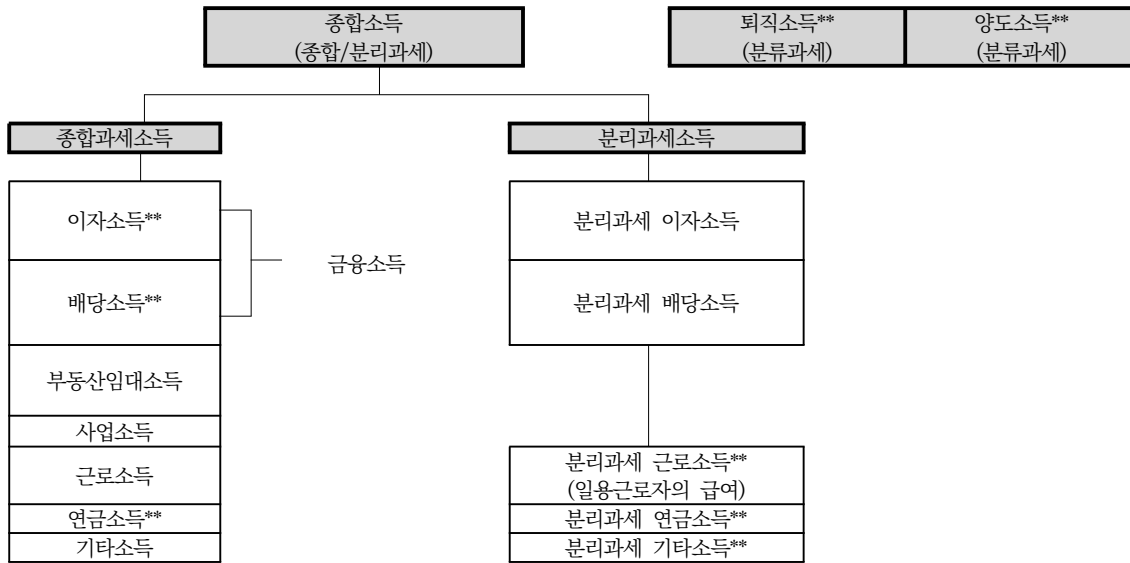
#### 4. 세후소득기준 계층별 소득세감면의 중산층복원 효과

##### 가. 소득세체계와 소득세 감면 규모 계산<sup>1)</sup>

이하에서는 2000년과 2010년도 소득계층별 소득세감면에 따른 세후소득 증가분 산출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제는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열거주의 방식을 따른다. 과세방식에 따라 인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와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그리고 종합소득 이외의 분류소득에 대하여 별도의 세율체계가 적용되는 분류과세로 구분된다” (고제이 2012, p20)([그림 4 - 1] 참조).

1) 고제이(2012)의 소득세 추계방법론을 따름

[그림 4-1] 과세소득의 종류와 구분



주: 본고의 세액추계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경우 \*\*로 표시하였음, 고제이(2012, p21)그림1 재인용.

기본적으로 가구의 소득과 지출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에 기초하여 추계할 수 있는 소득세 항목으로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이하 “개인소득세”) 그리고 분리과세금융소득세가 있다<sup>2)</sup>. 일용직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일용직근로자 여부와 근로일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2009년 이전의 가계동향조사는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자의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는다.

즉, 본고에서 총소득세는 개인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세의 합계로 정의된다. 가계동향조사는 기본적으로 가구전체의 소득과 소비활동에 대한 조사이다. 인별 과세원칙에 따른 개인소득세 산출을 위해 개인의 취업, 연령, 가구주와의 관계 등 인적정보를 토대로 개인화 작업을 수행한 후 연도별 소득세법을 적용하였다<sup>3)</sup>. 본고에서 개인소득세 추계시 고려된 비과세·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와 관련하여 인적공제항목 중 기본공제로는 인적공제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공제, 추가공제로 경로우대, 여성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 출산·입양(08년 신설)공제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2000년과 2010년

2)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3) 자세한 인별 소득세 산출과정은 고제이(2012) 참조

각각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와 다자녀추가공제를 반영하였다.

연금보험료 공제로 국민연금 및 특수직 연금보험료 납부액을 인별 취업정보 등을 활용하여 '연도별 보험료율' 산식에 따라 별도로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근로소득자 특별공제 항목 중 정보가 없어 산출이 어려운 주택자금공제를 제외한 모든 특별공제항목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입유무와 직업정보를 토대로 연도별 보험료 산식에 따라 별도로 계산한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비롯하여 가구 대표납세주에 한하여 보장성 보험료를 적용하고 의료비공제, 교육비(납세주의 경우 부양자까지, 기타의 경우 본인 교육비) 그리고 종교기부금 공제를 적용하였다(이사, 혼례, 장례 100만원 공제는 2008년 폐지). 세법요건에 따라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자와 근로소득자 중 특별공제총액<표준공제일 때 특별공제 대신 표준공제를 적용하였다.

이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로 '06년 12월 시행근거가 마련되어 2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09년 첫 지급된 ('08년 귀속소득분) EITC를 산출하였다(<표 4-5>). EITC를 제외한 다른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정보가 없어 원천 배제하였다. 이러한 모든 공제를 개인별로 적용해서 연도별 세율표에 따라 개인소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액공제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개인소득세액을 계산하였다(<표 4-1>~<표 4-4>참조).

<표 4-1> 연도별 근로소득공제

| 2000       |                           | 2010       |                               |
|------------|---------------------------|------------|-------------------------------|
| 총급여구간      | 공제액                       | 총급여구간      | 공제액                           |
| 500만원 이하   | 전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 1,500만원 이하 | 5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1,500만원 이하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 1,500만원 초과 | 900만원+9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                           |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
|            |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4,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한도액        | 1,200만원                   | 한도액        | 없음                            |

〈표 4-2〉 연도별 종합소득공제

| 구분        |       |                 | 2000                     | 2010  |
|-----------|-------|-----------------|--------------------------|---|
| 인적공제      | 기본공제  | 본인공제            | 100                      | 150   |
|           |       | 배우자공제           | 100                      | 150   |
|           |       | 부양가족공제          | 100                      | 150   |
|           | 추가공제  | 경로자우대           | 50                       | 100<br>(70세이상)  |
|           |       | 부녀자공제           | 50                       | 50  |
|           |       | 6세이하 공제         | 50                       | 100   |
|           |       | 출산/입양공제         | -                        | 200(08년신설)  |
| 소수공제자추가공제 |       | 1인:100<br>2인:50 | -                        |   |
| 다자녀추가공제   |       | -               | 100+(자녀수-2)*200          |   |
| 근로자특별공제   | 보험료   | 국민건강보험          | 전액                       | 전액  |
|           |       | 노인장기요양보험        | -                        | 전액  |
|           |       | 고용보험            | 전액                       | 전액  |
|           |       | 보장성보험           | 100                      | 100   |
|           | 의료비   | 본인              | 급여 3%이상<br>300           | 전액  |
|           |       | 부양가족            | 급여 3%이상<br>300           | 급여 3%이상 700   |
|           | 교육비   | 본인              | 전액                       | 전액  |
|           |       | 미취학아동           | 100                      | 300   |
|           |       | 초중고             | 150                      | 300   |
|           |       | 대학              | 300                      | 900   |
|           | 기부금   | 종교기부금           | min(기부금, 근<br>로소득*5/100) | 종교기부금한도<br>=[종합소득금액-기부금=<br>소득금액]*10/100+”소득금<br>액*5/100과 종교기부금중<br>적은 금액 이외<br>기부금한도=”소득금액”*15/<br>100 |
| 이사혼인장례    |       | -               | -(08년 폐지)                |   |
| 표준공제      | 근로소득자 |                 | 60                       | 100   |
|           | 종합소득자 |                 | 60                       | 60  |

〈표 4-3〉 연도별 세율표

| 2000(10-40%)             |                            | 2010(6-35%)              |                                |
|--------------------------|----------------------------|--------------------------|--------------------------------|
| 과세표준                     | 세액                         | 과세표준                     | 세액                             |
| 1,000만원 이하               | 과표x10/100                  | 1,200만원 이하               | 과표x6/100                       |
| 1,000만원 초과<br>4,000만원 이하 | 100+1,000만원<br>초과금x20/100  | 1,200만원 초과<br>4,600만원 이하 | 72만원+1,200만원<br>초과금x15/100     |
| 4,000만원 초과<br>8,000만원 이하 | 700+4,000만원<br>초과금x30/100  | 4,600만원 초과<br>8,800만원 이하 | 582만원 +4,600만원<br>초과금x24/100   |
| 8,000만원 초과               | 1900+8,000만원<br>초과금x40/100 | 8,800만원 초과               | 1,590만원 +8,800만원<br>초과금x35/100 |

주: 각 과세연도별 소득세법에 기초하여 작성함.

〈표 4-4〉 근로소득세액공제

|              | 2000         | 2010         |
|--------------|--------------|--------------|
| 세액구간         | 공제액          | 공제액          |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산출세액*0.5     | 산출세액*0.55    |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 | 22만5천+초과*0.3 | 27만5천+초과*0.3 |
| 공제한도         | 60           | 50           |

〈표 4-5〉 '08-'10년 귀속소득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 구간 | 부부합산 근로소득      | 근로장려금 산정기준        |
|----|----------------|-------------------|
| 점중 | 0-800만원 미만     | 근로소득*15%          |
| 평탄 | 800-1200만원 미만  | 120만원             |
| 점감 | 1200-1700만원 미만 | (1700만원-근로소득)*24% |

〈표 4-6〉 이자·배당 소득세 원천징수세율

| 구분           | 2000 | 2010 |
|--------------|------|------|
| 기본세율(주민세 포함) | 22   | 15.4 |
| 우대세율(농특세 포함) | 10.5 | 9.5  |

(단위: %)

이렇게 산출된 개인소득세액과 〈표 4-6〉의 연도별 이자·배당 소득세 기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융소득세액을 합산하여 개인별 총소득세액( $T$ )을 구한다. 가구원들의 개인별 총소득세액을 합산하여 가구총소득세액을 산출한다. 분석에서 세전소득( $X$ )은 경상소득으로 정의하였으므로 여기에서 가구총소득세액을 차감하여 가구세후소득( $N$ )을 구한다.

각 소득감면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n$ 개 공제항목 각각이  $n-1$ 개의 다른 공제항목들과의 가능한 모든 조합에서 만들어내는 세후소득 증가분 즉, 평균적인 한계기여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하고 많은 계산과정이 요구된다. 그런데 비과세소득이나 소득공제의 기능을 보면 이들은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때, 과세표준액 대비 평균 산출세액의 비율을 동등화가구가 직면하는 한계산출세율이라 정의하자. 여기에 각각의 가구동등화 소득공제금액을 곱하여 해당 공제로 인한 소득세 감소분을 추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산출된 소득세 감소분은 다소 과소추정될 가능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분석의 편의를 위해 후자의 방식에 기준하여 다음과 같이 세후소득 그룹별 소득세감면 효과를 산출해보았다.

먼저 가구단위 분석은 가구구성과 규모에 따른 이질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가구변수를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가구원수가 다른 가구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준화하였다. 2000년과 2010년의 비교를 위해 CPI(2010=100)를 사용하여 모든 금액변수를 2010년 불변가격으로 환산하였다. 가구동등화 세후소득 그룹별 평균산출세율을 구하고 이에 개별 소득공제 금액의 그룹별 평균값을 적용하여 가구동등화 세후소득 그룹별 평균 소득세 감면효과를 추계하였다.

### 나. 계층별 소득세감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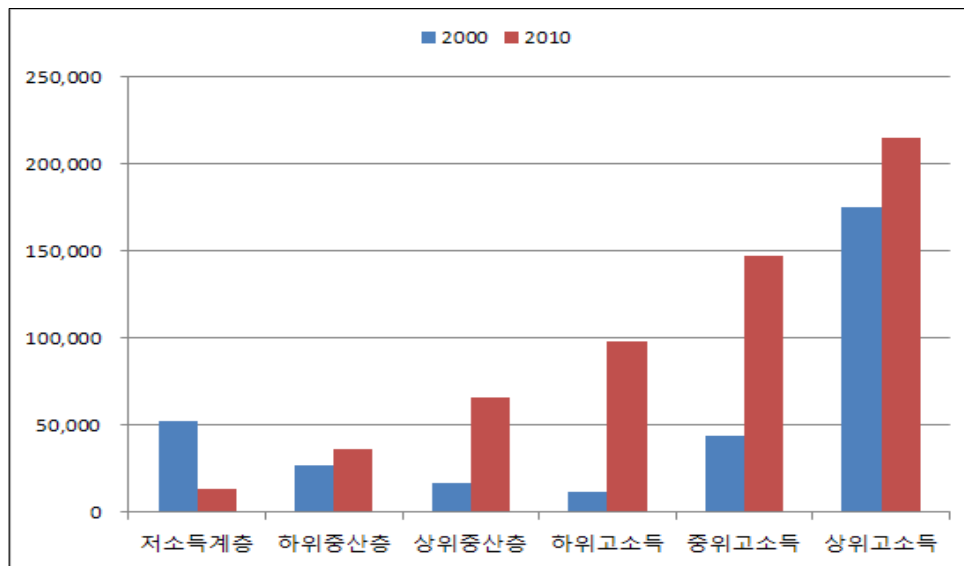
〈표 4-7〉 소득 계층별 월소득공제

(단위: 원)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2000 | 기본공제  | 24,639 | 8,723  | 4,377  | 2,606  | 7,714   | 25,214  |
|      | 기타공제  | 27,816 | 18,383 | 12,455 | 9,258  | 36,423  | 150,333 |
|      | 총조세지출 | 52,455 | 27,105 | 16,833 | 11,864 | 44,137  | 175,547 |
| 2010 | 기본공제  | 6,728  | 11,757 | 16,512 | 19,816 | 24,108  | 28,910  |
|      | 기타공제  | 6,409  | 24,762 | 49,139 | 78,668 | 122,830 | 186,230 |
|      | 총조세지출 | 13,136 | 36,519 | 65,651 | 98,485 | 146,941 | 215,140 |

주: 기타공제 = 추가공제 + 소수자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표준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EITC + 비과세(근로소득공제)

[그림 4-2] 소득 그룹별 총조세지출(월)



2000년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총조세지출은 저소득층에서 52,455원이었으나 하위중산층 ~ 하위고소득층까지 점점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져 상위고소득층이 175,547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0년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총조세지출은 저소득층에서 13,136원이었고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점점 높아졌으며 상위고소득층이 215,140원으로 가장 높았다. 2000년보다 2010년에 저소득계층은 소득세감면을 덜 받았지만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감면을 더 많이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8〉 기본공제 소득효과 배수

(단위: 배)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2000 | 기본공제  | 1.00  | 0.35  | 0.18  | 0.11  | 0.31  | 1.02  |
|      | 기타공제  | 1.13  | 0.75  | 0.51  | 0.38  | 1.48  | 6.10  |
|      | 총조세지출 | 2.13  | 1.10  | 0.68  | 0.48  | 1.79  | 7.12  |
| 2010 | 기본공제  | 1.00  | 1.75  | 2.45  | 2.95  | 3.58  | 4.30  |
|      | 기타공제  | 0.95  | 3.68  | 7.30  | 11.69 | 18.26 | 27.68 |
|      | 총조세지출 | 1.95  | 5.43  | 9.76  | 14.64 | 21.84 | 31.98 |

주: 기타공제 = 추가공제 + 소수자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공제 + 표준공제 + 근로소득세액공제 + EITC + 비과세(근로소득공제)

저소득계층의 기본공제액을 1로 놓고 기본공제 소득효과배수를 보면 2000년에는 하위중산층 ~ 하위고소득층까지 급격하게 줄었다가 다시 증가하여 상위고소득층에서는 저소득계층의 1.02배로 저소득층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010년에는 계층이 증가할수록 증가폭이 점점 커져 상위고소득층에서는 저소득계층의 4.30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고, 2010년에 소득계층이 증가할수록 총조세지출이 급속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타공제 중 연금보험료공제, 특별공제, 비과세(근로소득공제)에서 고소득층(하위고소득 ~ 상위고소득)이 2000년보다 더 많은 공제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다. 계층별 소득세감면에 따른 중산층 복원 효과

균등화 경상소득에서 총종합소득세와 금융소득세를 빼서 세후소득으로 만들어준 후 총조세지출을 더하고 다시 계층을 나누어 소득계층별 비중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먼저 2000년, 2010년의 세후소득에 각 연도의 총조세지출을 더하여 소득계층별 비중을 관찰하고 2010년도의 총조세지출이 2000년과 같다면 중산층의 비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010년의 세후소득에 2000년의 총조세지출을 더하여 비중의 변화를 계산하였다.

〈표 4-9〉 균등화 세후+총조세지출(실질)기준 평균 및 중위소득

|                            | 표본수   | 월평균 균등화 소득 | 균등화 중위소득   |
|----------------------------|-------|------------|------------|
| 세후소득(2000)<br>+총조세지출(2000) | 6,413 | 1,553,042원 | 1,413,758원 |
| 세후소득(2010)<br>+총조세지출(2010) | 7,415 | 1,964,077원 | 1,790,077원 |
| 세후소득(2010)<br>+총조세지출(2000) | 7,415 | 1,932,723원 | 1,764,322원 |

〈표 4-10〉 소득계층별 평균 세후+총조세지출

(단위: 원)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세후소득(2000)<br>+총조세지출(2000) | 518,267 | 1,080,927 | 1,712,366 | 2,400,525 | 3,280,913 | 5,074,568 |
| 세후소득(2010)<br>+총조세지출(2010) | 600,141 | 1,386,192 | 2,178,491 | 3,055,804 | 4,183,866 | 6,219,263 |
| 세후소득(2010)<br>+총조세지출(2000) | 603,176 | 1,358,906 | 2,139,196 | 3,000,803 | 4,099,941 | 6,134,606 |

〈표 4-11〉 균등화 세후+총조세지출기준의 소득계층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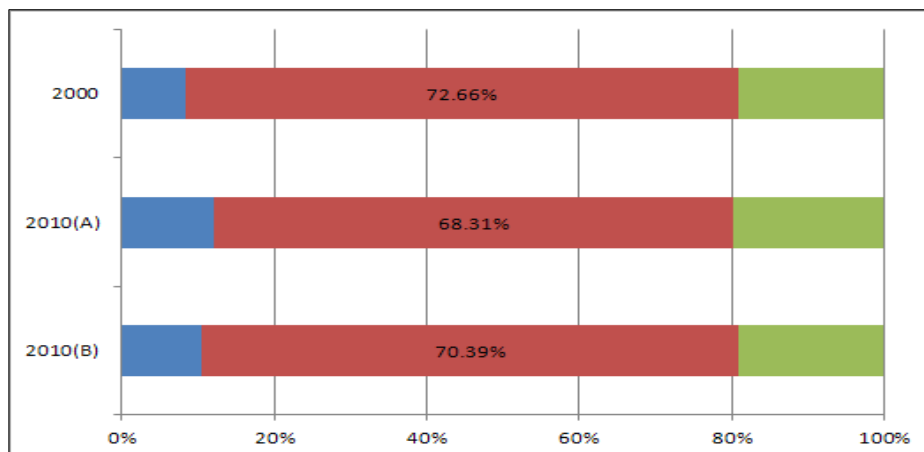
(단위: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2000    | 8.35  | 41.64 | 31.02 | 11.97 | 6.41  | 0.61  |
| 2010(A) | 12    | 38.01 | 30.3  | 12.24 | 6.49  | 0.96  |
| 2010(B) | 10.57 | 39.41 | 30.98 | 11.87 | 6.16  | 1.01  |

주: 2000 = 세후소득(2000) + 총조세지출(2000), 2010(A) = 세후소득(2010) + 총조세지출(2010), 2010(B) = 세후소득(2010) + 총조세지출(2000)



[그림 4-3] 균등화 세후+총조세지출기준 중산층의 비중변화



2000년의 세후소득+총조세지출의 중산층 비중은 72.66%이고 2010년의 세후소득+총조세지출의 중산층 비중은 68.31%로 줄었다가 2010년의 세후소득+2000년의 총조세지출의 중산층 비중은 70.39%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인적공제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2000년의 소득과세체계를 2010년에 적용하는 경우 세후소득 기준 중산층은 68.31%가 아닌 70.39%로 복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난 10년간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소득세제의 변화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음을 시사한다. 2000년과 2010년의 소득세제를 비교해보면, 먼저 근로소득공제 최저 총급여구간의 소득공제율이 2009년부터 100%에서 80%로 축소되었다. 납세의무자의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인적공제 금액이 명목금액으로는 약 두 배가량 증가했으나 평균 가구원수 하락과 같은 가구구성 변화나 노동시장의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게다가 근로소득자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하여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등을 근로소득에서 차감하는 근로자 특별공제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제변화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상승률과 소비수준을 보이는 고소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예컨대 특별공제항목의 공제한도가 모든 소득계층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지라도, 예산제약으로 이미 한계수준에서 소비하는 저소득층의 공제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다. 공제규모에 따라 납세자의 과표구간이 결정되므로 이 경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직면하는 한계세율의 격차는 좁혀지게 된다. 이와 같이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공제체계의 변화는 곧 세후소득의 격차를 기대만큼 감소시키

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물론 2000년과 2010년의 과표구간과 그에 따른 초과누진세율이 달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는 다소 무리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도의 소득공제체계가 인적공제의 상대적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었다는 점, 그리고 지난 10년간 소득공제체계가 고소득 근로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에 비추어보았을 때, 하위 중산층이 저소득계층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는 인적공제의 확대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높은 면세자 비율이나 인적공제가 정액공제라는 점 등을 생각해 보면 바람직한 세제개편방향이라 할 수 없다. 조세정의 차원에서도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감면 혜택은 축소해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이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수평적 형평성을 담보하면서도 중산층 회복을 꾀할 수 있는 합리적 과세체계의 정립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을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EITC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분석결과에 따르면 과세표준 증가로 면세점 기준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석시기가 EITC 신설 직후에 국한되어 있어 그 효과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부양자녀 요건 완화, 자영업자 포함 등 지속적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에는 CTC(자녀장려세제)의 신설 및 EITC와의 연계에 따른 저소득층 세제장려금 지급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고제이(2012). 조세와 소득·자산 불평등에 관한연구. 박사학위논문, 경제학과, 고려대학교.
- 남준우(2007),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의 규모 및 소득 변화의 추이, 한국노동연구원.
- 동아시아연구원(2009), 국민계층의식조사, 여론브리핑 제 59호.
- 유경준·최바울(2008), 중산층의 정의와 추정, 한국개발연구원.
- 윤희숙(2013), 중산층 현황에 대한 다면적 분석과 중산층 확대전략에의 시사점, 한국개발연구원.
- 통계청(2011), 가계동향조사 이용자 가이드.
- 한국 갤럽(2013), Gallup Report 한국인의 경제체감지수.
- 현대경제연구원(2012),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 부록

〈부표 1〉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비율

(단위: %)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전체  | 7.34  | 42.66 | 31.81 | 11.41 | 5.59  | 1.20  |
|      | 10대 | 1.50  | 0.30  | 0.10  | 0.02  | 0.10  |       |
|      | 20대 | 14.92 | 13.65 | 10.76 | 7.48  | 5.03  | 1.40  |
|      | 30대 | 39.32 | 47.31 | 42.37 | 32.31 | 29.36 | 18.68 |
|      | 40대 | 26.39 | 27.73 | 32.95 | 37.61 | 33.83 | 54.62 |
|      | 50대 | 11.04 | 8.60  | 12.50 | 20.79 | 27.89 | 17.15 |
|      | 60대 | 5.47  | 1.95  | 1.31  | 1.78  | 2.62  | 8.15  |
|      | 70대 | 1.13  | 0.46  | 0.02  | 0.00  | 1.16  |       |
|      | 80대 | 1.13  |       |       |       |       |       |
| 2000 | 전체  | 9.55  | 40.45 | 30.42 | 12.34 | 6.35  | 0.89  |
|      | 10대 | 0.54  | 0.25  |       | 0.03  |       |       |
|      | 20대 | 6.42  | 8.13  | 5.80  | 4.60  | 2.62  | 1.86  |
|      | 30대 | 30.86 | 35.90 | 35.42 | 26.48 | 24.47 | 19.78 |
|      | 40대 | 23.29 | 30.78 | 33.82 | 37.49 | 41.13 | 33.44 |
|      | 50대 | 14.49 | 15.97 | 18.24 | 22.90 | 25.20 | 42.02 |
|      | 60대 | 15.72 | 8.03  | 5.99  | 7.76  | 6.10  | 2.91  |
|      | 70대 | 7.10  | 0.87  | 0.52  | 0.74  | 0.47  |       |
|      | 80대 | 1.57  | 0.07  | 0.21  |       |       |       |
| 2010 | 전체  | 12.24 | 37.77 | 29.56 | 12.48 | 6.69  | 1.26  |
|      | 10대 | 0.10  |       |       |       |       |       |
|      | 20대 | 2.42  | 3.07  | 1.95  | 1.76  | 0.29  |       |
|      | 30대 | 15.91 | 25.83 | 24.08 | 22.60 | 21.68 | 17.83 |
|      | 40대 | 25.36 | 37.57 | 40.31 | 40.39 | 41.40 | 38.96 |
|      | 50대 | 15.64 | 20.03 | 23.83 | 26.00 | 28.52 | 31.67 |
|      | 60대 | 20.94 | 9.86  | 7.49  | 7.26  | 6.89  | 11.47 |
|      | 70대 | 16.26 | 3.27  | 2.21  | 1.99  | 1.22  | 0.07  |
|      | 80대 | 3.37  | 0.38  | 0.12  |       |       |       |

〈부표 2〉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율

(단위: %)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전체  | 7.34  | 42.66 | 31.81 | 11.41 | 5.59  | 1.20  |
|      | 근로자 | 54.36 | 69.07 | 68.00 | 66.42 | 58.99 | 49.62 |
|      | 자영자 | 23.66 | 26.56 | 30.15 | 30.37 | 39.42 | 48.05 |
|      | 기타  | 21.98 | 4.38  | 1.84  | 3.21  | 1.59  | 2.32  |
| 2000 | 전체  | 9.55  | 40.45 | 30.42 | 12.34 | 6.35  | 0.89  |
|      | 근로자 | 38.19 | 54.61 | 59.46 | 61.82 | 65.61 | 50.03 |
|      | 자영자 | 20.16 | 35.98 | 33.27 | 31.03 | 29.66 | 48.85 |
|      | 기타  | 41.65 | 9.41  | 7.27  | 7.16  | 4.73  | 1.13  |
| 2010 | 전체  | 12.24 | 37.77 | 29.56 | 12.48 | 6.69  | 1.26  |
|      | 근로자 | 38.23 | 61.25 | 67.05 | 71.25 | 74.69 | 76.85 |
|      | 자영자 | 14.78 | 26.79 | 25.06 | 23.22 | 18.60 | 11.29 |
|      | 기타  | 47    | 11.96 | 7.89  | 5.52  | 6.7   | 11.87 |

48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부표 3〉 가구주의 연령대별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율

(단위: %)

|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30대    | 근로자 | 61.77 | 72.79 | 73.53 | 66.91 | 65.94 | 50.08 |
|      |        | 자영자 | 28.90 | 25.05 | 25.33 | 31.22 | 33.29 | 49.92 |
|      |        | 기타  | 9.33  | 2.15  | 1.14  | 1.86  | 0.77  |       |
|      | 4,50대  | 근로자 | 50.42 | 59.84 | 61.03 | 64.46 | 55.28 | 50.03 |
|      |        | 자영자 | 26.43 | 34.82 | 36.60 | 32.16 | 42.88 | 46.73 |
|      |        | 기타  | 23.15 | 5.34  | 2.37  | 3.38  | 1.84  | 3.24  |
|      | 60대 이상 | 근로자 | 23.96 | 36.69 | 24.21 | 36.24 | 39.68 | 38.48 |
|      |        | 자영자 | 18.86 | 26.70 | 60.96 | 43.65 | 59.21 | 61.52 |
|      |        | 기타  | 57.18 | 36.61 | 14.82 | 20.10 | 1.10  |       |
| 2000 | 30대    | 근로자 | 44.98 | 60.10 | 69.39 | 72.39 | 79.33 | 68.61 |
|      |        | 자영자 | 27.90 | 36.57 | 29.08 | 25.34 | 20.67 | 31.39 |
|      |        | 기타  | 27.12 | 3.33  | 1.53  | 2.27  |       |       |
|      | 4,50대  | 근로자 | 42.76 | 50.89 | 54.29 | 58.25 | 61.75 | 46.49 |
|      |        | 자영자 | 22.67 | 42.37 | 38.06 | 35.26 | 33.02 | 52.01 |
|      |        | 기타  | 34.57 | 6.74  | 7.65  | 6.49  | 5.23  | 1.50  |
|      | 60대 이상 | 근로자 | 17.04 | 34.02 | 26.87 | 39.22 | 43.79 |       |
|      |        | 자영자 | 8.33  | 22.01 | 33.70 | 31.13 | 37.07 | 100.0 |
|      |        | 기타  | 74.62 | 43.96 | 39.42 | 29.65 | 19.14 |       |
| 2010 | 30대    | 근로자 | 46.19 | 75.41 | 82.25 | 86.59 | 90.22 | 86.30 |
|      |        | 자영자 | 20.73 | 17.41 | 14.12 | 10.05 | 5.57  | 10.75 |
|      |        | 기타  | 33.09 | 7.17  | 3.62  | 3.37  | 4.20  | 2.94  |
|      | 4,50대  | 근로자 | 49.40 | 58.35 | 64.30 | 69.82 | 75.45 | 81.33 |
|      |        | 자영자 | 16.31 | 32.68 | 29.64 | 26.93 | 19.31 | 12.21 |
|      |        | 기타  | 34.29 | 8.98  | 6.06  | 3.26  | 5.25  | 6.46  |
|      | 60대 이상 | 근로자 | 23.17 | 40.08 | 44.62 | 39.89 | 26.06 | 34.80 |
|      |        | 자영자 | 11.82 | 24.94 | 24.23 | 31.95 | 48.04 | 6.46  |
|      |        | 기타  | 65.01 | 34.98 | 31.14 | 28.15 | 25.90 | 58.74 |

<부표 4> 가구주의 연령에 따른 비율

(단위: %)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전체  | 4.08  | 45.90 | 30.69 | 10.75 | 6.55  | 2.03  |
|      | 10대 | 1.32  | 0.33  | 0.09  | 0.40  |       |       |
|      | 20대 | 19.76 | 13.57 | 10.02 | 7.38  | 6.57  | 7.78  |
|      | 30대 | 44.27 | 50.32 | 38.61 | 32.30 | 23.39 | 16.59 |
|      | 40대 | 20.07 | 25.51 | 35.05 | 36.66 | 46.45 | 40.15 |
|      | 50대 | 7.84  | 8.22  | 14.39 | 20.28 | 21.40 | 24.75 |
|      | 60대 | 5.67  | 1.63  | 1.67  | 2.85  | 1.82  | 8.74  |
|      | 70대 | 0.88  | 0.40  | 0.16  | 0.13  | 0.38  | 2.00  |
|      | 80대 | 0.19  | 0.02  |       |       |       |       |
| 2000 | 전체  | 4.34  | 45.65 | 33.24 | 10.74 | 4.73  | 1.29  |
|      | 10대 | 0.26  | 0.29  | 0.01  | 0.08  |       |       |
|      | 20대 | 4.94  | 8.34  | 5.18  | 4.32  | 3.61  | 3.03  |
|      | 30대 | 27.62 | 37.89 | 32.81 | 24.75 | 19.43 | 20.21 |
|      | 40대 | 19.18 | 27.99 | 37.67 | 40.57 | 31.00 | 41.44 |
|      | 50대 | 17.34 | 15.75 | 17.28 | 22.02 | 37.76 | 27.52 |
|      | 60대 | 20.09 | 8.19  | 6.42  | 6.93  | 7.46  | 7.60  |
|      | 70대 | 8.51  | 1.38  | 0.58  | 0.78  | 0.75  |       |
|      | 80대 | 2.05  | 0.17  | 0.04  | 0.56  |       | 0.21  |
| 2010 | 전체  | 7.04  | 42.96 | 33.30 | 11.38 | 4.62  | 0.70  |
|      | 10대 | 0.18  |       |       |       |       |       |
|      | 20대 | 1.91  | 3.07  | 1.95  | 1.04  | 0.99  | 0.98  |
|      | 30대 | 9.01  | 25.52 | 25.82 | 19.69 | 16.39 | 17.56 |
|      | 40대 | 17.33 | 32.95 | 43.00 | 44.22 | 51.33 | 58.98 |
|      | 50대 | 15.72 | 22.60 | 20.22 | 27.96 | 26.04 | 20.42 |
|      | 60대 | 28.00 | 10.90 | 7.57  | 5.52  | 4.39  | 1.30  |
|      | 70대 | 22.24 | 4.57  | 1.38  | 1.55  | 0.85  | 0.76  |
|      | 80대 | 5.62  | 0.40  | 0.07  | 0.01  |       |       |

<부표 5>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율

(단위: %)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전체  | 4.08  | 45.90 | 30.69 | 10.75 | 6.55  | 2.03  |
|      | 근로자 | 72.98 | 71.89 | 64.72 | 54.03 | 62.65 | 39.48 |
|      | 자영자 | 15.76 | 23.98 | 31.76 | 39.46 | 32.69 | 54.98 |
|      | 기타  | 11.27 | 4.12  | 3.52  | 6.51  | 4.65  | 5.54  |
| 2000 | 전체  | 4.34  | 45.65 | 33.24 | 10.74 | 4.73  | 1.29  |
|      | 근로자 | 45.33 | 57.67 | 58.26 | 53.51 | 44.78 | 41.49 |
|      | 자영자 | 24.79 | 31.65 | 32.06 | 36.47 | 44.18 | 43.13 |
|      | 기타  | 29.88 | 10.68 | 9.68  | 10.02 | 11.05 | 15.38 |
| 2010 | 전체  | 7.04  | 42.96 | 33.30 | 11.38 | 4.62  | 0.70  |
|      | 근로자 | 42.11 | 60.71 | 66.79 | 67.71 | 66.65 | 59.88 |
|      | 자영자 | 15.54 | 24.07 | 24.33 | 22.76 | 27.11 | 34.47 |
|      | 기타  | 42.36 | 15.22 | 8.89  | 9.53  | 6.25  | 5.66  |

50 중산층 구성의 변화와 소득공제에 의한 중산층 복원 정책의 효과성 평가

〈부표 6〉 가구주의 연령대별 종사상지위에 따른 비율

(단위: %)

|      |        |     | 저지출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지출 | 중위고지출 | 상위고지출 |
|------|--------|-----|-------|-------|-------|-------|-------|-------|
| 1990 | 30대    | 근로자 | 81.05 | 74.15 | 70.62 | 53.88 | 71.26 | 35.75 |
|      |        | 자영자 | 16.98 | 23.80 | 27.46 | 41.35 | 26.50 | 63.46 |
|      |        | 기타  | 1.97  | 2.05  | 1.92  | 4.76  | 2.24  | 0.79  |
|      | 4.50대  | 근로자 | 65.71 | 66.79 | 57.30 | 52.72 | 57.98 | 40.25 |
|      |        | 자영자 | 17.34 | 29.37 | 38.61 | 40.66 | 36.96 | 53.37 |
|      |        | 기타  | 16.95 | 3.85  | 4.09  | 6.62  | 5.06  | 6.38  |
|      | 60대 이상 | 근로자 | 39.52 | 22.13 | 47.96 | 22.16 | 79.85 | 10.03 |
|      |        | 자영자 | 24.97 | 35.74 | 23.93 | 50.88 | 10.57 | 82.98 |
|      |        | 기타  | 35.50 | 42.13 | 28.11 | 26.97 | 9.59  | 6.99  |
| 2000 | 30대    | 근로자 | 59.97 | 61.68 | 68.23 | 62.07 | 66.19 | 61.50 |
|      |        | 자영자 | 29.03 | 33.16 | 28.26 | 34.26 | 31.93 | 38.50 |
|      |        | 기타  | 11.00 | 5.16  | 3.51  | 3.67  | 1.87  |       |
|      | 4.50대  | 근로자 | 48.48 | 56.56 | 54.28 | 51.90 | 37.31 | 37.76 |
|      |        | 자영자 | 32.98 | 36.02 | 37.24 | 39.30 | 51.34 | 43.84 |
|      |        | 기타  | 18.54 | 7.42  | 8.47  | 8.80  | 11.35 | 18.41 |
|      | 60대 이상 | 근로자 | 23.67 | 30.79 | 30.63 | 26.53 | 35.74 |       |
|      |        | 자영자 | 14.21 | 23.59 | 20.56 | 32.66 | 29.21 | 65.54 |
|      |        | 기타  | 62.12 | 45.62 | 48.82 | 40.81 | 35.05 | 34.46 |
| 2010 | 30대    | 근로자 | 76.86 | 72.49 | 82.80 | 83.93 | 73.52 | 52.91 |
|      |        | 자영자 | 6.17  | 16.98 | 13.09 | 11.88 | 20.71 | 38.18 |
|      |        | 기타  | 16.98 | 10.53 | 4.12  | 4.19  | 5.76  | 8.91  |
|      | 4.50대  | 근로자 | 58.75 | 60.40 | 63.86 | 66.58 | 65.93 | 63.00 |
|      |        | 자영자 | 17.82 | 28.83 | 29.25 | 25.93 | 28.60 | 33.66 |
|      |        | 기타  | 23.43 | 10.77 | 6.88  | 7.49  | 5.46  | 3.34  |
|      | 60대 이상 | 근로자 | 26.03 | 38.84 | 36.48 | 31.47 | 50.12 | 12.71 |
|      |        | 자영자 | 16.28 | 22.17 | 25.88 | 23.96 | 30.17 | 50.48 |
|      |        | 기타  | 57.69 | 38.99 | 37.64 | 44.57 | 19.71 | 36.8  |

〈부표 7〉 소득계층별 적자, 흑자(경상소득-소비지출)가구의 비율

(단위: %)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적자 | 45.73 | 10.46 | 5.91  | 3.78  | 5.86  | 4.04  |
|      | 흑자 | 54.27 | 89.54 | 94.09 | 96.22 | 94.14 | 95.96 |
| 2000 | 적자 | 56.47 | 16.18 | 7.09  | 6.89  | 4.65  | 2.91  |
|      | 흑자 | 43.53 | 83.82 | 92.91 | 93.11 | 95.35 | 97.09 |
| 2010 | 적자 | 58.20 | 15.52 | 6.69  | 5.74  | 1.13  | 1.53  |
|      | 흑자 | 41.80 | 84.48 | 93.31 | 94.26 | 98.87 | 98.4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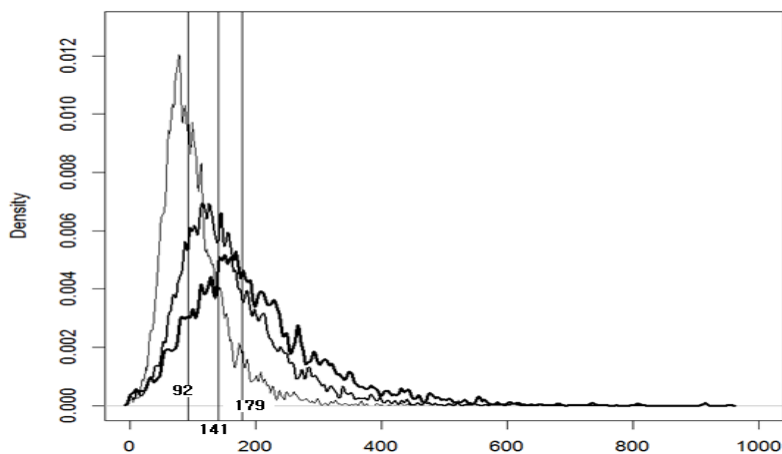


〈부표 8〉 소득계층별 적자, 흑자(경상소득-소비지출)가구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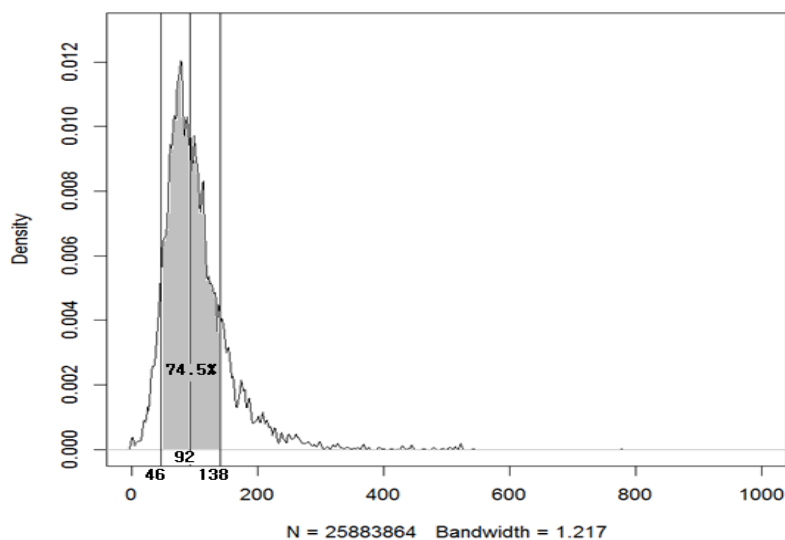
(단위: 원)

|      |    | 저소득계층     | 하위중산층     | 상위중산층     | 하위고소득     | 중위고소득     | 상위고소득       |
|------|----|-----------|-----------|-----------|-----------|-----------|-------------|
| 1990 | 적자 | - 201,173 | - 202,612 | - 425,691 | - 355,317 | - 563,145 | - 214,994   |
|      | 흑자 | 74,606    | 229,978   | 430,830   | 647,768   | 958,710   | 1,848,016   |
| 2000 | 적자 | - 271,527 | - 258,757 | - 335,531 | - 458,251 | - 507,673 | - 3,227,902 |
|      | 흑자 | 99,939    | 297,055   | 596,795   | 1,004,984 | 1,441,083 | 2,281,383   |
| 2010 | 적자 | - 364,395 | - 254,294 | - 390,890 | - 395,026 | - 165,339 | - 1,291,446 |
|      | 흑자 | 163,390   | 413,052   | 853,672   | 1,399,743 | 2,191,158 | 3,879,24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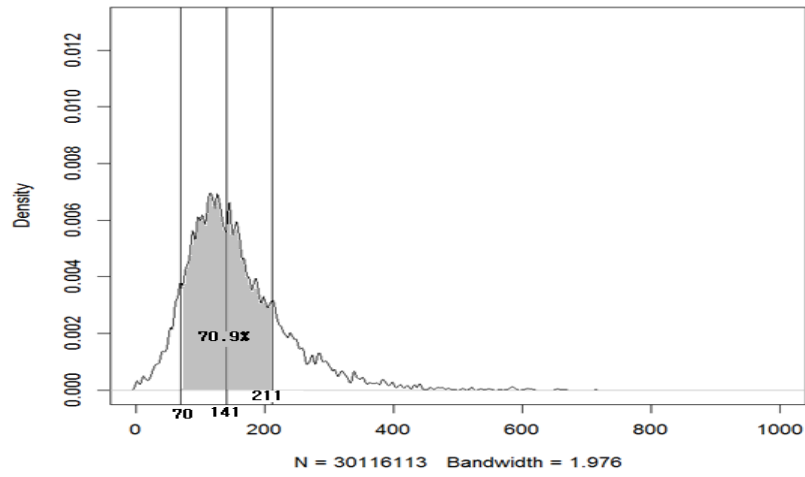
[그림 1] 1990, 2000, 201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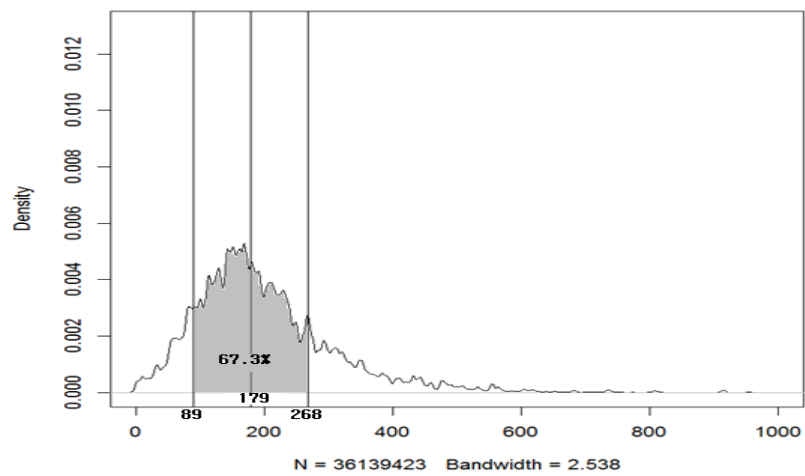
[그림 2] 199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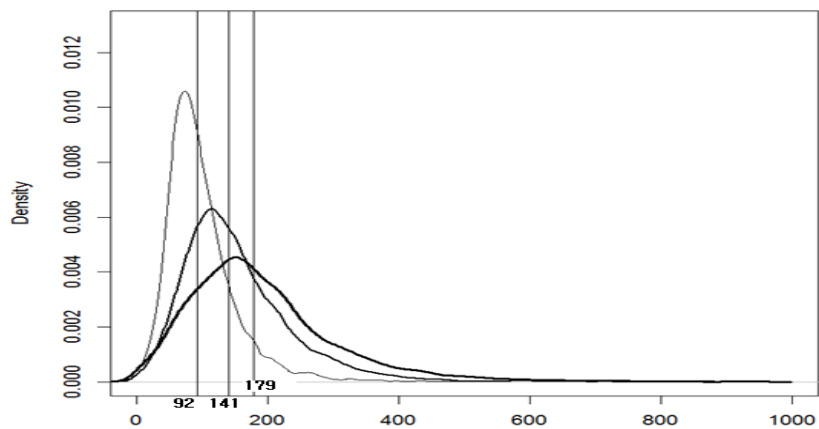
[그림 3] 200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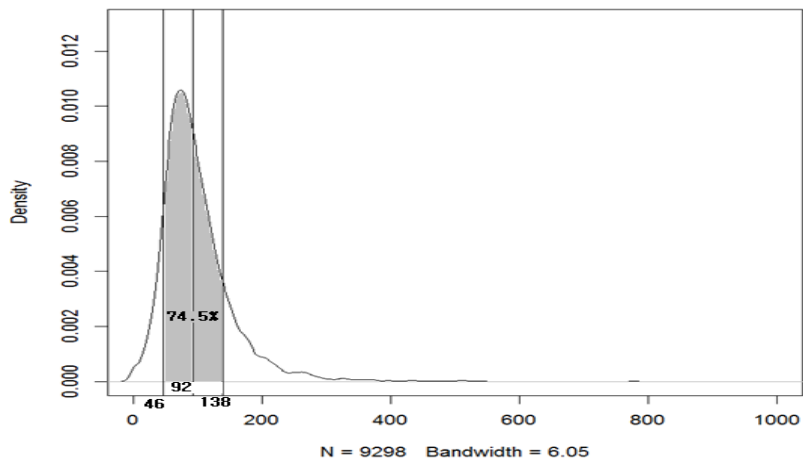
[그림 4] 201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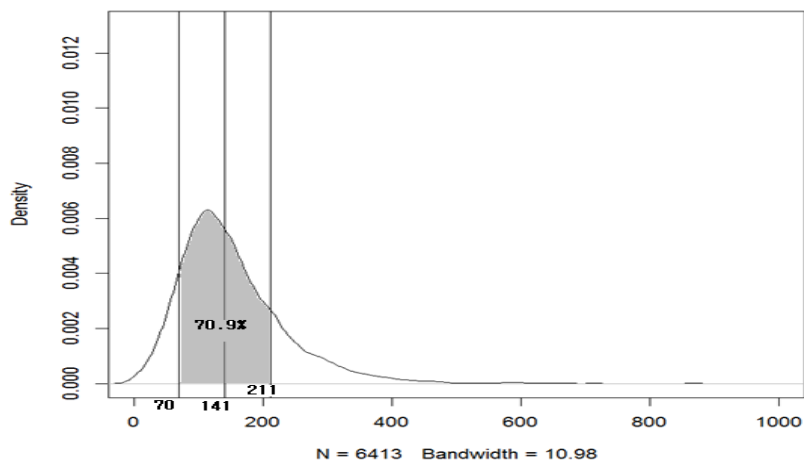
[그림 5] 1990, 2000, 201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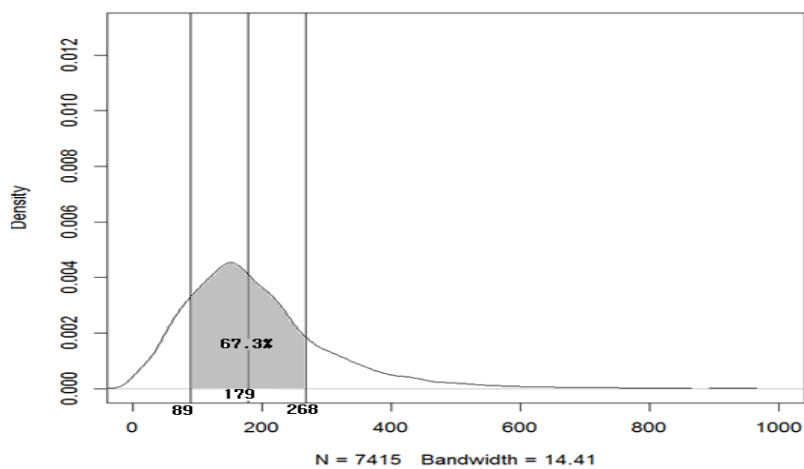
[그림 6] 199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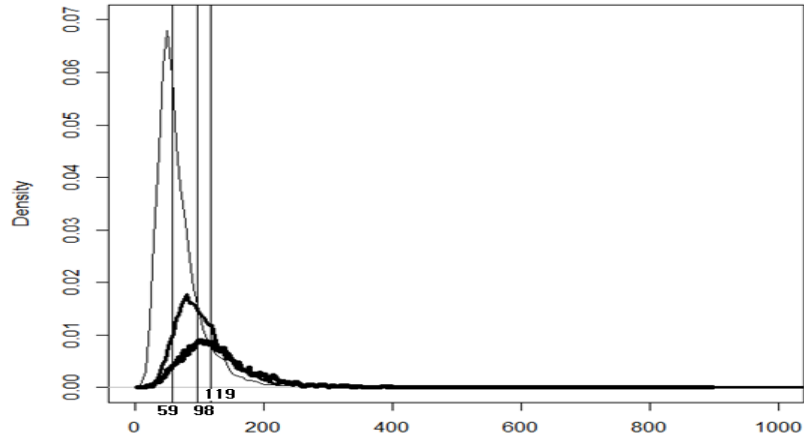
[그림 7] 200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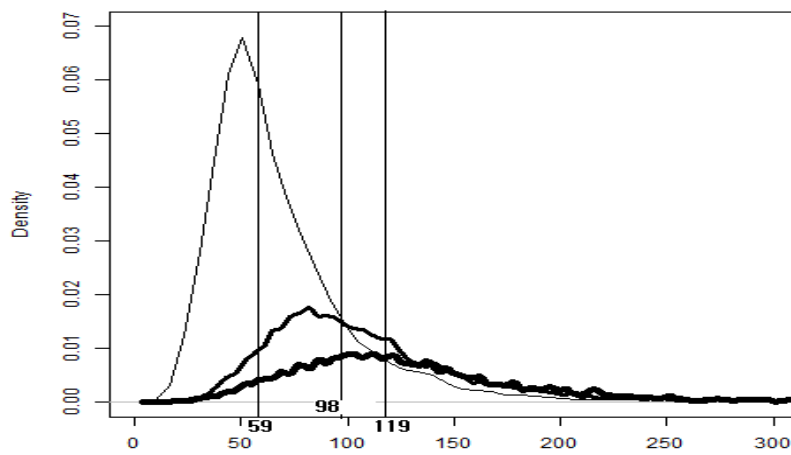
[그림 8] 2010년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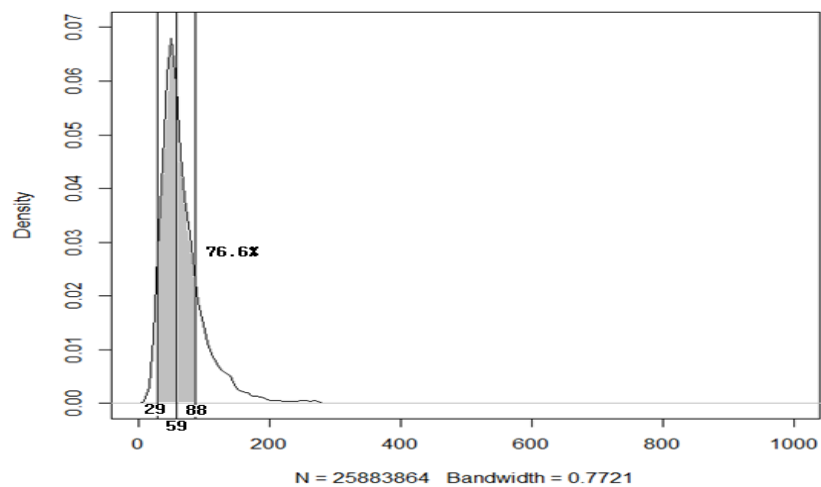
[그림 9] 1990, 2000, 201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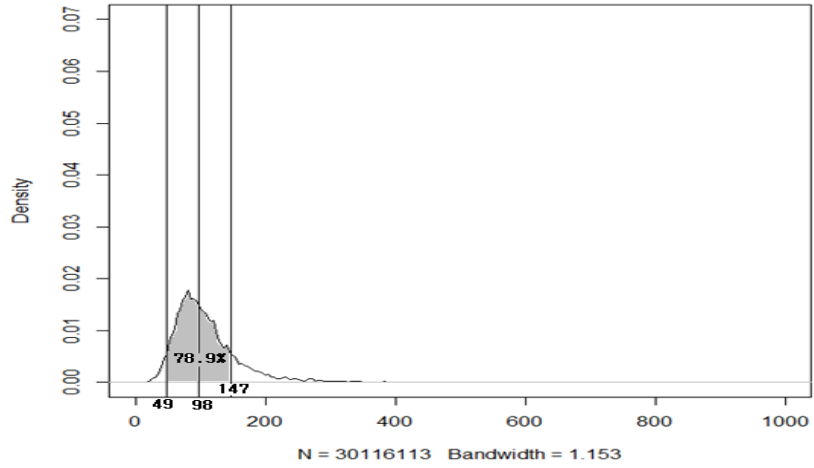
[그림 10] [그림 9]를 확대한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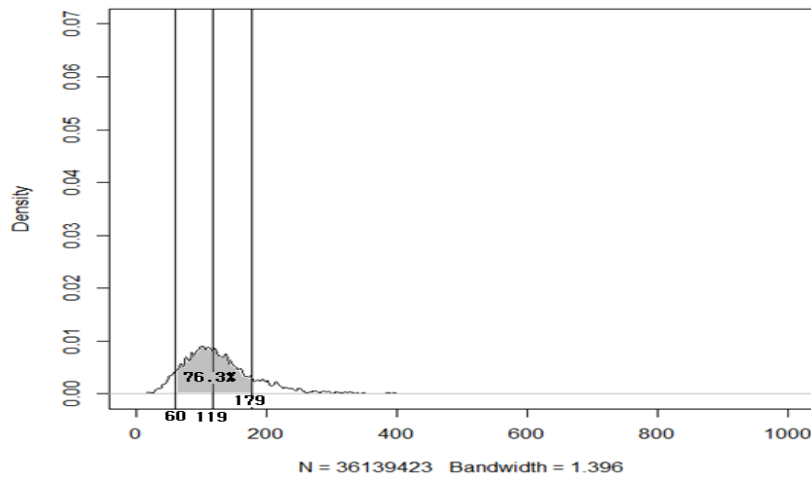
[그림 11] 199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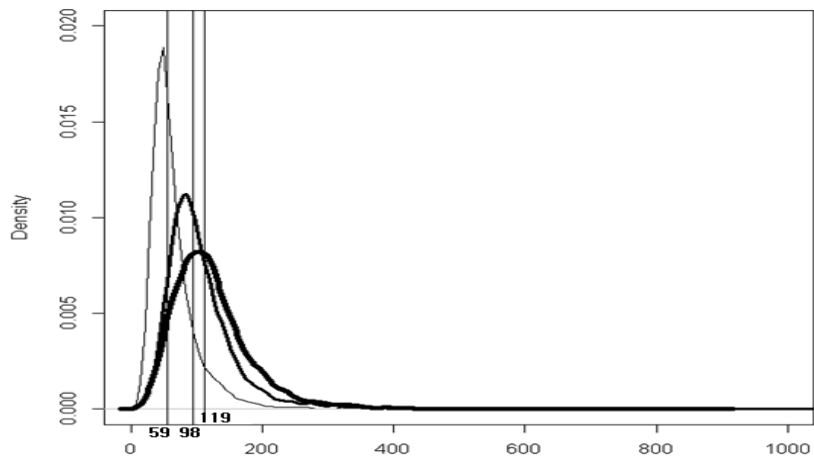
[그림 12] 200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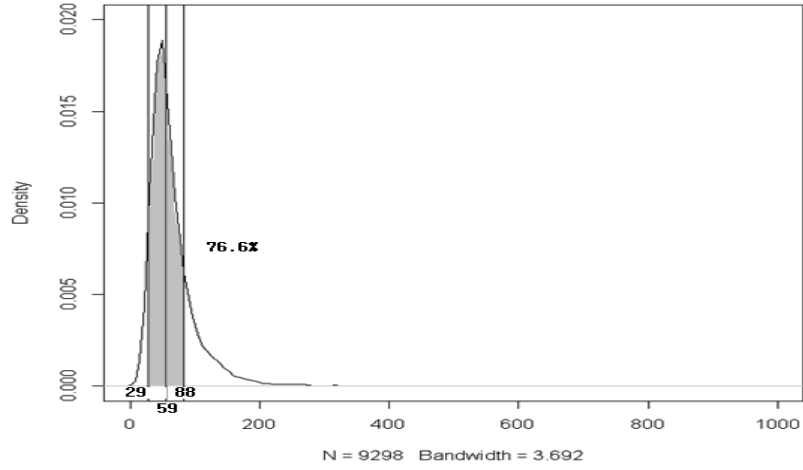
[그림 13] 201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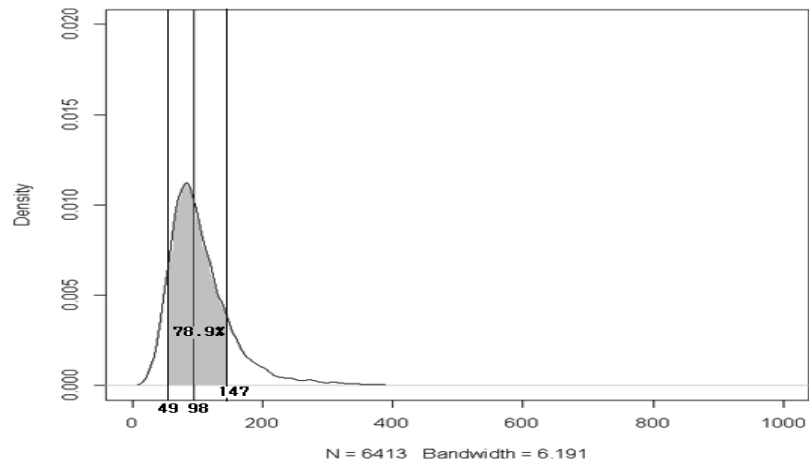
[그림 14] 1990, 2000, 201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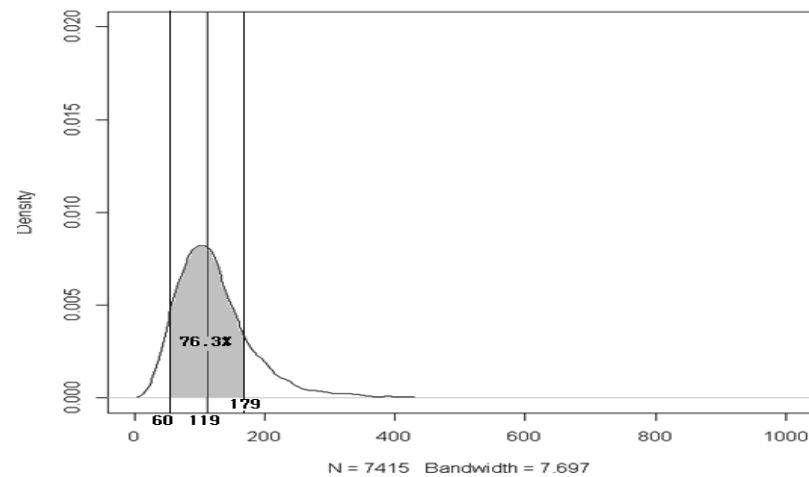
[그림 15] 199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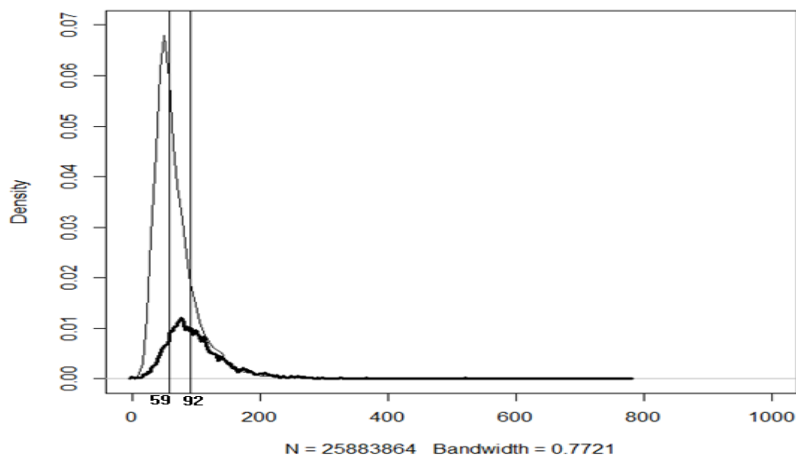
[그림 16] 200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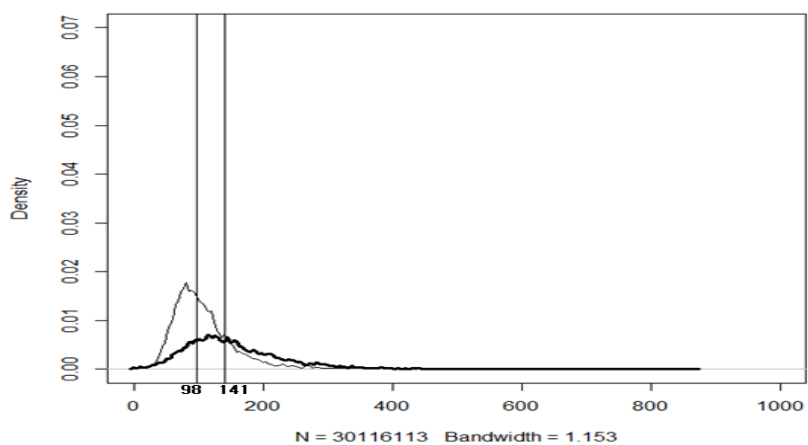
[그림 17] 2010년 균등화 소비지출의 밀도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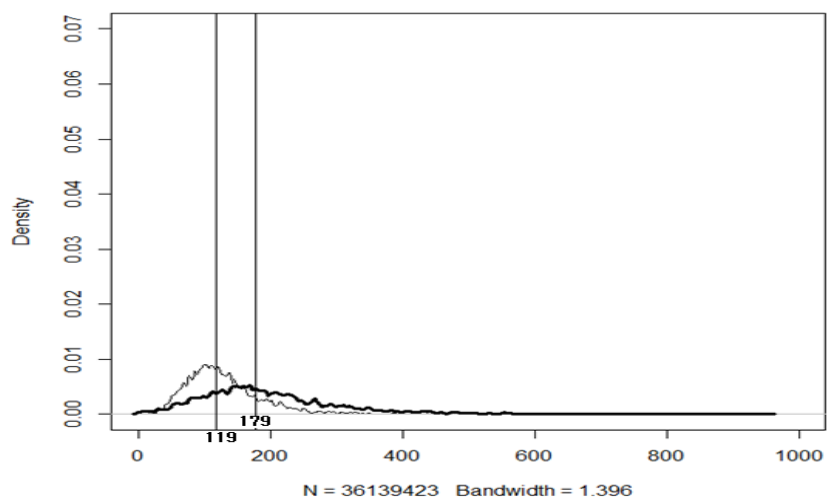
[그림 18] 1990년 균등화 소비자출과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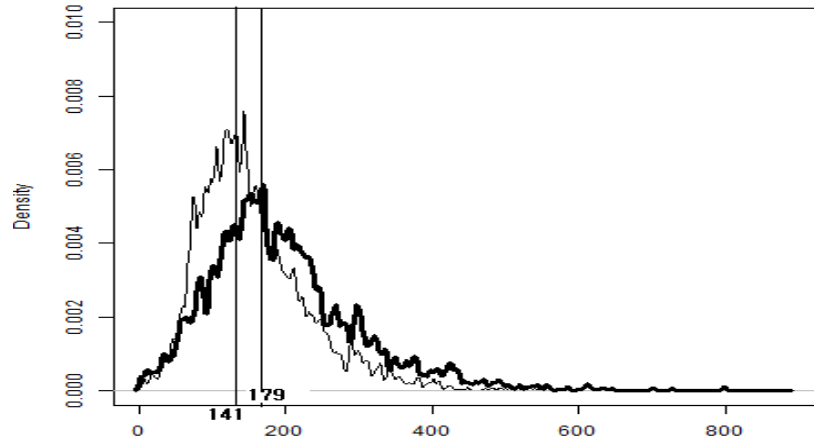
[그림 19] 2000년 균등화 소비자출과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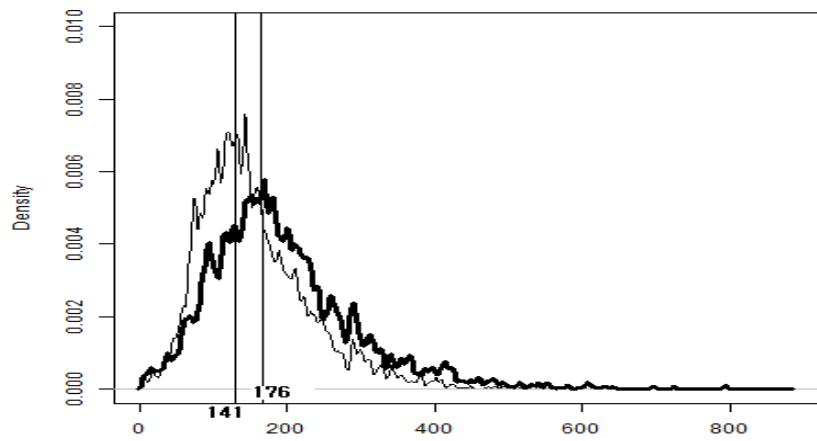
[그림 20] 2010년 균등화 소비자출과 균등화 경상소득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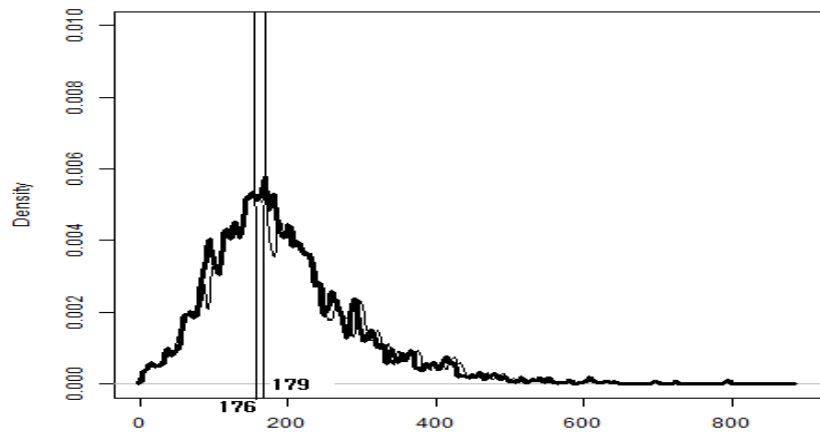
[그림 21] 세후(2000)+총조세지출(2000)과 세후(2010)+총조세지출(2010)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그림 22] 세후(2000)+총조세지출(2000)과 세후(2010)+총조세지출(2000)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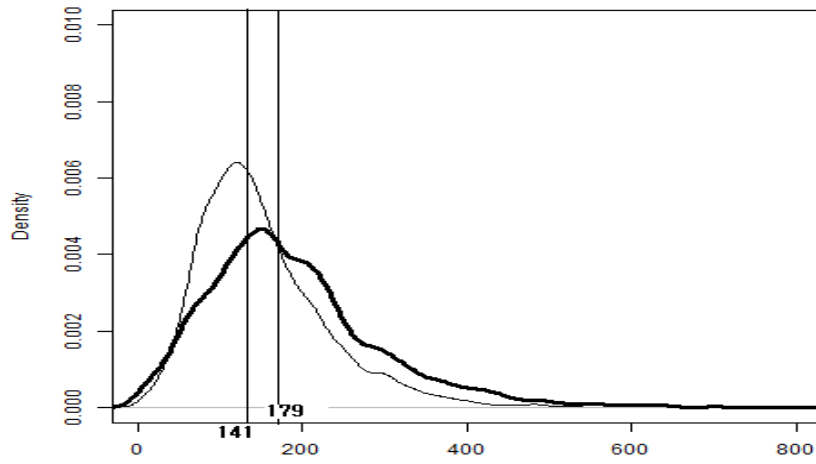


[그림 23] 세후(2010)+총조세지출(2010)과 세후(2010)+총조세지출(2000)의 밀도그래프(가중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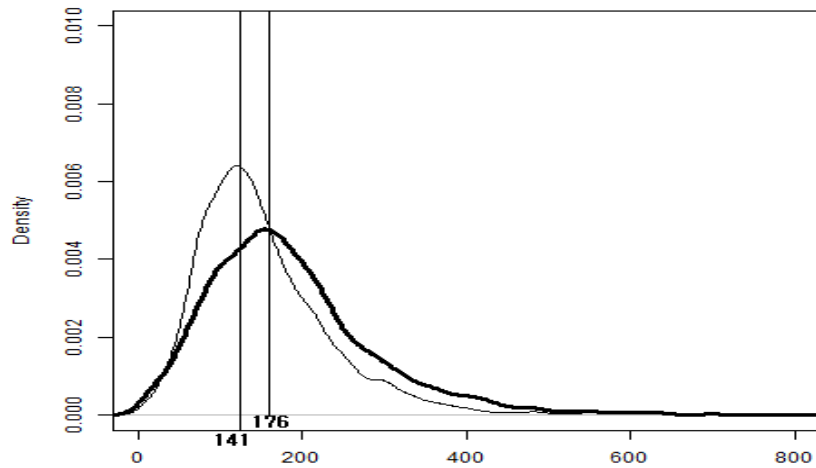




[그림 24] 세후(2000)+총조세지출(2000)과 세후(2010)+총조세지출(2010)의 밀도그래프



[그림 25] 세후(2000)+총조세지출(2000)과 세후(2010)+총조세지출(2000)의 밀도그래프



[그림 26] 세후(2010)+총조세지출(2010)과 세후(2010)+총조세지출(2000)의 밀도그래프

